

경남 거창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in Geochang County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송 정 숙 (Song, Jung-Sook)**

◁ 목 차 ▷

1. 머리말	4. 맺음말
2. 거창의 인문지리	<참고문헌>
3. 거창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 초 목 >

이 연구는 경상남도 거창지역 문집간행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창의 역사, 거창의 인물, 거창의 서원과 책판을 살펴보았다. 거창지역은 연산군의 왕비 신씨(愼氏)와 중종의 왕비 단경왕후 신씨의 관향이였으므로 이들의 즉위와 폐위, 복위와 관련하여 조선후기까지 거창현이 승격, 강등, 승격되었다. ‘수포대 강학’으로 일컬어지는 김평필과 정여창의 성리학 강의로 거창 지역에 학문이 진작되어 많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 거창의 대표적 인물로는 갈천 임훈, 동계 정은, 면우 광종석을 들 수 있다. 거창지역에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12곳에 서원이 창건되었다. 이 가운데 도산(道山)서원, 완계서원, 포충사의 3곳이 사액되었으며, 무신란을 진압하다가 전사한 이술원 장군을 향사하는 포충사만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았다. 거창지역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문집 가운데 거창 출신이 아닌 연재 송병선의 『연재집』이 거창에서 판각되었다는 사실은 거창 지역의 학풍이 영남학맥과 아울러 송시열의 기호학맥이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거창에서 간행된 3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문집 35종 가운데 문집은 29종(82.9%), 유집은 3종(8.6%), 실기는 3종(8.6%)이다. 33종(94.3%)이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고, 2인 이상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합집은 2종이다. 목활자본 문집 35종의 저자 35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14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로서 19세기 12인, 18세기 9인, 16세기 7인, 17세기 5인, 14·15세기 각 1인이다. 문집 저자 35인의 성관(姓貫)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19개 성씨 가운데 밀양박씨가 가장 많은 5종의 문집을 간행하였고, 다음으로 선산김씨·동래정씨·과평윤씨·하빈이씨가 각 3종의 문집을 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류씨·은진임씨·진양강씨·화순최씨가 각 2종, 김녕김씨를 포함한 10개 성씨가 각 1종씩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하였다.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35종 모두 19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다. 19세기에 7종, 20세기에 28종이 간행되었는데, 20세기 전반기에 26종(74.3%)이 간행되었다. 거창지역에서는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지식인 집단이 문중의 학문을 선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목활자본 문집을 활발하게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자의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면, 문집의 약 43%인 15종이 저자 사후 10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문집 35종 가운데 문집의 간행소를 파악할 수 있는 문집은 10종이다. 이 가운데 재실은 3종, 누정 4종, 서원 2종, 서당 1종이다. 재실은 용산재, 산천재, 동와재이고, 누정은 일원정과 고금정, 심소정, 도계정이며, 서원은 구연서원과 영천사이고, 서당은 사우당이다. 문집 권말의 판권지를 통해 목활자본 인쇄자, 즉 각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거창에서는 3명의 각수에 대한 정보가 3종의 문집에서 파악되었으니, 각수의 소재지는 거창, 산청, 경북 고령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산청, 합천, 함양 등 인근 지역의 연구와 비교하면 거창지역의 독자성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要語: 목활자본, 문집 간행, 경상남도 거창군, 목활자, 인쇄 출판의 역사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투고일: 2020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21일
 서지학연구, 제83집, 5-43,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5>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Geochang, the figures of Geochang, and the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nd books of Geochang in order to grasp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publication of books in Geochang, Gyeongsangnam-do. The Geochang area was the hometown of Queen Shin, Queen of Yeonsan-gun, and Shin, Queen Dangyeong, the queen of King Jungjong. Due to the lectures of Sung Confucianism by Geung-pil Kim and Yeo-chang Jeong, who are known as “Supodae Lectures”, academics were promoted in the Geochang area, and many talents were continuously produced. Representative figures of Geochang include Hun Im, On Jeong, and Jongseok Kwak. In the Geochang area, 12 Seowons were established from the mid 17th to the late 18th century. Among them, Dosan Seowon, Wangye Seowon, and Pochungsa were sacrificed, and only Pochungsa dedicated to General Sulwon Lee, who died while suppressing Musinran, was not destroyed.

Among the collections of works that were engraved in the Geochang area and possessed bookplates, the Serial Collection by Song Byeong-seon was engraved in Geochang area. It can be seen that the academic tradition in the Geochang region coexisted with the Yeongnam study and the Kiho stud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som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35 volumes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Geochang county area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author analyzed type of collections of works, their birth year and the family name of the author, the place and the year, and the publisher of the publication, and the printers of these different 35 kinds of the collections of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s of works demonstrate their forefathers' academic competencies. The types of collections of works were divided into 3 types, Munjip (文集), Yujip (遺集), and Silgi (實記). Of the collections of works 82.9% were Munjip. The authors were local intellectuals. Of these authors 34% of authors were born in the 19th century. Nineteen lineage groups published collections of works at Geochang area. Seventy four percent of the publications were published from 1900 to 1949. In terms of place, most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in the worshipping halls for their ancestors. Forty three percent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within 100 years after the author had died.

I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mpared with studies in nearby areas such as Sancheong, Hapcheon, and Hamyang, it is expected that the uniqueness of the Geochang area will be revealed more clearly.

Key words: wooden movable-type print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 collections of works, Geochang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history of printing and publishing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사회는 근대 백여 년 동안 외세의 침탈과 전쟁, 산업화·민주화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격변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은 물론 지역사회 즉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 공간은 물론 지역민들의 일상과 의식,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여기에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교통의 발달로 인한 지역의 균일화 현상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의 전통적 기록인 문집을 조사, 연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본다.

전통시대에 인물을 명기할 때 성씨와 관향은 반드시 적었지만, 어디에 거주하며 활동했는지의 공간에 대한 기술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사회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은 ‘경향(京鄕)’이라는 어휘에서 드러나듯이, 서울[京]인가, 지방[鄕]인가가 관심의 대상일 뿐 지방에서도 어디인지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심 밖이었다. 이처럼 서울, 즉 중앙과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지방’, 곧 ‘시골’로 양분되어 위계화 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방은 “국가의 보편성, 동일성으로 환원됨으로써 고유의 가치를 지닌 대체불가능한 차이의 존재가 아닌, 언제나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존재이다. 이때 지방은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삶터로서 인간과 다양한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의 장으로 의미화 되기보다는 국가 하위 단위라는 텅 빈 표층적 공간으로 의미된다.”¹⁾ 이 연구에서는 경남 거창지방에서 지방민들이 간행한 목활자본 문집 분석을 통해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삶터로서 인간과 다양한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의 장으로서의 거창의 고유한 가치와 자율성을 찾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살아서는 7척의 몸뚱이지마는 죽어서는 겨우 관 하나 들어갈 만한 뗏자리만 있으면 족하다. 오직 덕업을 쌓아 이름을 드날리는 것으로 불후(不朽)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책을 짓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위(魏)나라 조조(曹操, 155-220)의 아들인 문제(文帝) 조비(曹丕, 187-226)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껴 자신이 어떻게 불후(不朽)함,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저술에

1) 차윤정, “로컬(리티)의 개념적 이해와 로컬리티 구성요소,” 『로컬리티의 인문학 10년: 소통과 확장』,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로컬리티의인문학연구단 제10회 국내학술심포지엄 자료집(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2017.3.10.), 31.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한다.²⁾ 조비가 책을 지어 길이 전함으로써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도모했듯이, 우리의 선조들도 조상이 남긴 시문과 행적을 모아 문집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조상의 이름이 영원히 전해지기를 소망했다. 이 연구에서는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거창 지역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고자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거창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역사적, 사상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1) 거창지역의 역사를 개관하고, 2) 거창지역의 학문적·정신적 리더인 거창의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고, 3) 거창지역의 서원과 서원에서 향사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즉 거창지역 사람들이 따르고자하는 정신적 사표는 누구인지 살펴보고, 4) 거창지역에서 선현의 학문과 말씀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문집을 편찬한 책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35종을 대상으로 ① 문집의 유형은 어떠한가? ② 문집의 저자는 누구이며, 성관은 무엇이며, 저자는 어느 시기에 활동했으며, 그들의 학문적·정치적 성향은 어떠한가? ③ 문집은 언제·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가? ④ 문집을 인출한 인쇄자, 즉 각수는 누구인가 등을 밝히고자 한다.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의 수집경위는 다음과 같다. 주요 고서 소장기관³⁾의 장서목록에서 간행지가 영남지역인 목활자본을 1차 선별한 후, 원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판본이 목활자본이고 간행지가 영남인 영남지역 간행 목활자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⁴⁾ 그리고 경상대학교 문헌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과 장인진의 <영남 간행 문집 목록>,⁵⁾ 한국국학진흥원의 『경남지역의 목판자료』,⁶⁾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의 『경남 서부지역의 고문헌』⁷⁾ 등에 소개된 경남지역의 문집 목록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판본과 간행지를 확인하였다. 간기나 인기, 판권지 등에 간행처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저자의 세거지가 영남인지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영남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명·저자의 생몰년·성씨와 관향, 학문적 사승관계 등의 서명저자사항, 간행년·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간행소(처)·인쇄자 등의 간행사항, 형태사항, 출처 등을 기술하였다.⁸⁾ 이 연구에서는 <영남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35종을 대상으로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사항, 간행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2) 이노우에 스스무 지음, 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옮김,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66 참조.
3) 이때 목활자본을 조사한 주요 고서 소장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동국대학교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부산대학교도서관, 연세대학교도서관, 영남대학교도서관 등이다. 이 당시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4) 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한국고활자학술회의 발표논문집(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3.29.).
5)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335-416.
6)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1), (2),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경남 서부지역의 고문헌』 I, II, III (진주: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8).
8) 송정숙,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207 참조.

많은 출사자를 배출하였고, 신씨(愼氏)는 다수의 관인(官人)을 배출하며 훈척(勳戚) 가문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1495년(연산군 1)에는 거창현이 거창군(居昌郡)으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연산군의 왕비 신씨(愼氏)의 관향(貫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의 왕비였던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마저 폐비가 되면서, 거창군은 거창현으로 강등되었다. 단경왕후가 연산군 정비(正妃)와 고모·조카 사이였으며,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반정 세력에 의해 살해당한 신수근(愼守勤)의 딸이기 때문이다. 단경왕후는 중종반정으로 폐비 되었지만, 1739년(영조 15) 복위됨에 따라 1799년(정조 23)에는 거창현이 다시 거창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거창도호부는 1895년(고종 32)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창군이 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거창 지역 토성의 활약은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되기 이전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자녀군분상속(子女均分相續)과 같은 가족 제도와 상속 제도의 영향도 작용하였는데, 이는 타 고을의 재지사족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15세기 후반은 훈구파(勳舊派)에 대항하는 사림파(士林派)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대두하는 시기였다.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金宗直)의 조카 김수양(金粹讓)은 관직을 버리고 거창에 정착하였으며,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은 거창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가 잦았다.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 시기 거창 지역에서는 임훈(林薰)과 신권(愼權)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황(李滉)·조식(曹植)과 동년배로 서로 교유하며, 북상면의 갈천서당(葛川書堂), 위천면의 요수서당(樂水書堂)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을 양성하였다. 이 무렵 퇴계 이황은 1543년(중종 38) 장인 권질(權磧)이 머무르고 있던 거창의 영승(迎勝) 마을을 방문한 바 있으며, 남명 조식도 거창과 인접한 함양의 화림동(花林洞), 산청의 지곡사(智谷寺) 등에서 강론하였는데, 거창의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거창 지역은 경상우도 의병 활동의 중심 근거지가 되었다. 당시 가북면 용산에 의병군의 진영(陣營)이 설치되었으며, 김면(金沔)의 휘하에 기병유사(起兵有司) 정유명(鄭惟明)을 비롯해 문위(文緯)·성팽년(成彭年)·변훈(卞渾)·윤경남(尹景男) 등이 인근의 의병과 합세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한편, 1636년 병자호란은 조선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절개와 의리를 지킨 대표적 인물로 정온(鄭蘊, 1569-1641)이 있다.

1728년(영조 4) 무신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19일간의 무신란(戊申亂)은 당시 야당이었던 소론과 남인이 집권당인 노론에서 추대한 영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으킨 반란이었다. 이 무신란의 특징은 사대부가 일으킨 반란, 즉 '사림(士林)의 난(亂)'¹⁵⁾이라는 점이다. 무신란은 경상도에서는 거창의 정희량이 주동을 했고, 충청도에서는 청주 일대의 이인좌가, 전라도에서는 태인현감 박필현과 나주나씨 집안이 가담을 했다. 정희량은 '의리의 선비' 동계(桐溪) 정온(1569-1641년)의 후손이다.

15) 이종천 편, 『居昌郡史(보정자료)』(거창: 거창문화원, 2009), 60.

정희량은 반란에 실패해 처형당했지만 거창 정씨집안은 반란 후 몇 십 년 있다가 복원됐다. 집권여당 측이었던 우암 송시열이 당과는 달랐지만 대쪽 같은 선비 정운을 매우 존경했기 때문에 이 집안은 봐줬던 것이다.¹⁶⁾ 동계 정운의 현손인 정희량과 그의 가까운 혈족은 무신란으로 풍비박산이 났지만 조정에서는 정운 제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자를 입적하게 하고, 1819년(순조 19)에 적몰된 전답을 돌려주었다.

1895년 전국 8도가 23부로 개편되자 거창도호부는 거창군이 되어 진주부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듬 해 13도가 설치되면서 거창군·안의군·삼가군은 경상남도에 속하게 되었다.¹⁷⁾

2.2 거창의 인물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거창의 인물로는 우선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주상면 성기 마을 출신인 회랑 대사가 있다. 조선 시대에는 청백리로 이름 높은 거창읍 모곡 출신의 모재(茅齋) 표빈(表贇), 북상면 갈천동 출신으로 효성과 학문을 겸비한 갈천(葛川) 임훈(林薰), 시호를 문청(文淸)이라 받은 행실과 덕행, 학문이 높았던 청연(靑蓮) 이후백(李後白), 위천면 역동에서 태어나 대유 학자로 이름을 날린 동계(桐溪) 정운(鄭蘊), 정운과 더불어 학문과 기개로 이름이 높아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받은 용주(龍洲) 조정(趙綱), 이인좌의 난에 순절하여 충강(忠剛)이라는 시호를 받은 화촌(和村) 이술원(李述原), 영남 유학의 종주이며 거유(巨儒)로서 파리장서의 주역이자 독립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면우(旻宇) 곽종석(郭鍾錫) 등의 인물을 꼽을 수 있다.¹⁸⁾ 이들 가운데 거창의 대표적인 인물로 갈천 임훈과 동계 정운, 면우 곽종석 3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갈천(葛川) 임훈(林薰)

갈천 임훈(1500-1584)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중성(仲成), 호는 자이당(自怡堂)·고사옹(枯查翁)·갈천(葛川)으로 1500년(연산군 6)에 거창군 안음현 갈천동[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태어났다. 임훈은 아버지인 석천(石泉) 임득蕃(林得蕃, 1478-1561)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1540년(중종 35)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독서(讀書)하였다.¹⁹⁾ 54세 때 이후 사직서 참봉 등을 제수 받았으나 부임하지는 않았다. 67세 때인 1566년에는 전국 육현(六賢)으로 선발되어 6품직인 언양현감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9월경에 사정전(思政殿)에서 왕에게 정심수신설(正心修身說)을 강론하였다. 70세 때(선조 2년)에는 왕에게 치도(治道)를 진강하였다. 74세 때는 광주목사에 임명되어 가장 뛰어난 치적을 올렸고, 83세 때는 장예원판결사(정3품)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85세

16) “조용현의 주유천하(42) 무신란(戊申亂)과 변산도적”, 농민신문, 2017.11.20.

17) “거창의 역사(歷史),”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18) “거창의 인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19) “임훈(林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때인 1584년(선조 17)에 세상을 떠나니, 용문서원에 배향되었으며 1665년에는 송시열의 도움으로 문집이 간행되었다. 1861년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871년에는 ‘효간(孝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²⁰⁾

2.2.2 동계(桐溪) 정은(鄭蘊)

동계 정은(1569-1641)의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고고자(鼓鼓子)로서 거창군 안음현 역동[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정유명에게 학문을 배웠고, 아버지의 스승인 갈천 임훈을 같이 섬기면서 안음의 학통을 형성하였다. 약관에 이르러 퇴계 이황의 제자인 월천 조목과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 두루 유학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킨 아버지를 도왔고, 1599년 합천 가야산에 가서 정인홍의 제자가 되었다.²¹⁾ 1606년(선조 39)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10년(광해군 2)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시장원검설서·사간원정언을 역임하였다.

동계가 활동하던 때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외세 침략과 광해군의 폭정 등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그는 이런 큰 변고를 만날 때마다 깨끗한 의리로 맞섰기에 그의 평생 삶은 질풍노도같이 파란만장하였다. 그가 45세(1613년) 때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게 한 강화부사 정항(鄭沆)의 처벌과 폐모살제(廢母殺弟)를 주창한 정호관(丁好寬), 윤인(尹訥), 정조(鄭造) 등을 탄핵하는 갑인봉사(甲寅封事)를 올렸다가 제주도에 10년간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²²⁾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석방되어 헌납에 등용된 이후 사간·이조참의·대사간·경상도관찰사·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나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며 청나라에 굴복하는 화의가 이루어지자 자결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자 모든 관직을 사직하고 거창군 북상면으로 내려와 숨어 살다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광주(廣州)의 현절사(顯節祠), 제주의 굴림(橘林)서원, 함양(咸陽)의 남계(藍溪)서원에 배향되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은거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유림들이 1654년(효종 5)에 건립한 재사 모리재(某里齋)가 있다.²³⁾ 문집인 『동계선생문집(桐溪先生文集)』은 정은의 손자 정기수(鄭岐壽)가 가장초고(家藏草稿)를 수습하여 1660년에 초간본을 목판으로 간행하였고, 1677년에 附錄과 補遺가 이어 판각되었다.

20) 거창군청, “갈천 임훈,” 거창의 인물,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portal/Index.do?c=WW0604020200>>. [검색 2020.2.26.]

21) “정은(鄭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22) 송희준, “桐溪 鄭蘊의 학통과 학문사상,” 『嶺南學』 제26호(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67-68.

23) “정은(鄭蘊),” 두산백과, 참조.

2.2.3 면우(旻宇) 곽종석(郭鍾錫)

면우 곽종석(1846-1919)의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명원(鳴遠), 호는 면우(旻宇)로서 1846년(헌종 12) 6월 24일 단성현[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초포에서 태어난 면우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6-7세에는 사서와 시경·서경 등을 암송하였다고 한다. 22세(1896년) 때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다전마을로 이사하여 연수사 역동에서 독서하였다. 1870년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문인이 되어 이진상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을 더욱 심화시켜 퇴계학을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으며, 1883년 경북 봉화군 춘양으로 이사하여 퇴계학의 본고장에서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의 목을 벨 것과 조약의 부당함을 세계만방에 고하고 국제 공법으로 담판할 것을 상소하였다. 결국 1910년 한일병합의 소식을 듣게 되자 통곡하면서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였고, 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름도 ‘도(鈎)’로 고쳤다. 호적 등재와 은사금도 거부하였으며, 경학원 경상남도 강사직 제의에 대해서도 “대한의 신화가 되었으니 당연히 죽어서도 대한의 귀신이 되겠다.”며 거절하였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종결 후 팽배했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독립의 희망을 키워 가던 중, 1월 고종 황제가 죽고 독살설까지 유포되자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 이에 곽종석은 문인들과 독립 청원서[파리 장서]를 짓고 전국의 유림 대표 137인의 서명을 얻어 김창숙으로 하여금 파리 평화 회의에 제출케 하였다. 이는 파리는 물론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전국의 각 향교에까지 우송되어, 서명한 유생들에 대한 대대적 검거가 벌어졌다. 곽종석도 4월 18일 검거되어 징역 2년을 언도받았으나, 6월 22일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8월 24일 다전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유림과 문인들이 곽종석을 추모하기 위하여 1920년에 생가가 있는 산청군 단성면에 니동서당(尼東書堂)을, 1921년에 거창군 가조면에 다천서당(茶川書堂)을 건립하였다.²⁴⁾ 문인 박봉호 등이 편집하여 1925년에 신연활자로 간행한 『면우선생문집(旻宇先生文集)』 165권63책, 속집 12권4책이 전한다.

2.3 거창의 서원과 책판

2.3.1 서원

거창지역에서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약 150년 동안에 12개소의 서원이 세워졌으나,²⁵⁾ 다음 <표 1>과 같다. 이 가운데 사액서원은 3개소이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소는 모두 훼손되었다가 일부만 복구되었다.

24) “곽종석(郭鍾錫),”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25) 거창문화원, 『알기쉬운 거창역사』 (거창: 거창문화원, 2014), 222.

<표 1> 거창의 서원²⁶⁾

	서원명	소재지	제향 인물	창건 연대	비 고
1	龜淵書院	위천면 황산리 769	愼權, 成彭年, 愼守彝	숙종 20년(1694)	
2	道山書院	가조면 일부리	金宏弼, 鄭汝昌, 鄭蘊, 李彥迪	현종 2년(1661)	사액
3	屏巖書院	가조면 사병리 병산마을	卞季良, 卞仲良, 卞璧	숙종 33년(1707)	
4	星川書院	북산면 월성리	宋浚吉, 李翻, 宋明欽	인조 21년(1643)	
5	潛濱書院	남하면 무릉리	鄭矩, 鄭種, 鄭彪, 鄭時修, 鄭榮振, 鄭應斗	영조 20년(1744)	
6	龍源書院	가북면 서변리	文緯, 卞昌後	숙종 12년(1686)	
7	浣溪書院	주상면 완테리	金湜	현종 3년(1662)	사액
8	嶧川書院	위천면 강천리	林得蕃, 鄭惟明	인조 12년(1634)	초명 嶧川鄉祠
9	龍泉祠	가조면 장기리 원천마을	刑士保, 柳子房, 李繼俊, 全八顧, 全八及, 徐翻	숙종 37년(1711)	
10	褒忠祠	웅양면 노현리	李述原	영조 13년(1737)	사액, 훼손 안 됨
11	景忠祠	남하면 무릉리	愼溟翊	영조 15년(1739)	
12	彰忠祠	거창읍 대동리	愼錫顯, 愼克終, 愼德顯, 愼致謹, 愼光世	정조 12년(1788)	일명 오충사

2.3.1.1 구연서원(龜淵書院)

구연서원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구연동에 있는 수승대의 경내에 있는 서원으로 1540년(중종 35)에 요수(樂水) 신권(愼權, 1501-1573)이 서당을 세워 제자를 가르치던 곳이다. 1694년(숙종 20)에 사림에서 ‘구연서원’으로 개칭하여, 요수 신권과 석곡(石谷) 성팽년(成彭年, 1540-1594)을 제향하다가 1808년(순조 8)에 황고(黃臯) 신수이(愼守彝)를 추향(追享)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당이 훼손되었으나, 강당과 문루인 관수루는 그대로 남아있다. 강당은 1945년 실화로 소실되었던 것을 다음해인 1946년에 원형대로 건축한 것이다.

요수 신권은 장인인 석천(石泉) 임득번(林得蕃)에게 배웠으며 임득번의 아들인 갈천 임훈, 구암(龜巖) 이정(李楨)과 더불어 지역에서 학문에 열중하였다. 이들은 남명 조식(1501-1572)과 동시대의 사람들이다. 요수 신권은 학문적 성격과 생활 자세에서 영남 지역 사림의 초기 학문과 사상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⁷⁾ 구연서원 마당에는 ‘山高水長’이라고 새겨놓은 비석이 있는데, 이는 요수 신권의 공적비로서 신권의 학문이 산처럼 높고 물처럼 영원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세 분은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하여 문하에서 두 명의 정승과 일곱 명의 판서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26) 구산우, 이정수, 장성진, 최정용 공저, 『경남의 서원』 (서울: 선인, 2008), 15. ; 거창문화원, 『알기쉬운 거창역사』 (거창: 거창문화원, 2014), 222-223 참고.

27) “구연서원(龜淵書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2.3.1.2 도산서원(道山書院)

도산서원(道山書院)은 1661년(현종 2)에 유학자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과 동계(桐溪) 정온(鄭蘊)을 배향하기 위해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에 세워졌다. 1662년에 사액되었으나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어 지금은 서원 터에 비석 1개만 남아 있다.

당시 처가인 합천 야로에 거주하던 한훤당 김굉필과 함양 개평에 거처하던 일두 정여창이 중간 지점인 거창에 동료이자 한훤당의 동서가 되는 평촌(坪村) 최숙량(崔淑梁)이 살고 있는 연유로 거창 가조의 수포대(水瀑臺)에서 만나 5년이나 강학하여 이 지역 유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갈천 임흥으로 대표되는 원학동 문화권은 석곡 성평년, 쌍봉(雙峯) 김신옥(金信玉), 역양(嶧陽) 정유명(鄭惟明), 동계 정온 등을 거쳐 모계(茅溪) 문위(文緯), 먼우 곽중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굉필과 정여창은 무오사화(1498년, 연산군 4) 때 유배되었다가 1504년 갑자사화로 극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1661년에 거창 사림이 중심이 되어 거창의 부산(釜山) 마을에 도산서원을 창건하고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동계 정온을 배향하였다. 수포대 강학은 연산군 초에 이루어졌으나, 몇 백 년이 지나는데도 꾸준히 두 분의 학문과 인품이 후인들의 동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²⁸⁾

2.3.1.3 병암서원(屏巖書院)

병암서원은 1707년(숙종 33)에 거창으로 이주한 밀양 변씨들이 선조인 변중량(卞仲良)과 변계량(卞季良) 형제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에 창건하였으며, 뒤에 변중량의 5세손인 변벽(卞璧)을 추가 배향하였다. 1869년(고종 6)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변중량(1345-1398)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이고, 호는 춘당(春堂)으로 정몽주의 문인이다. 고려 말에 밀직사(密直使)를 지냈으며, 시(詩)에 능하였다. 1398년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에 이르렀으나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일파로 몰려 참살 당하였다.²⁹⁾

변계량(1369-1430)도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변중량의 아우이다.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으로 이색(李穡)과 권근(權近)의 문인이다. 1382년에 진사시, 1383년에 생원시, 138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변계량은 특히 문장에 뛰어나 1420년 집현전이 설치된 이후 거의 20년간 대제학을 맡아 외교문서를 작성하였고, 과거 시관으로 공정을 기해 고려 말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 정도전(鄭道傳)·권근으로 이어지는 관인문학가의 대표적 인물이다.³⁰⁾

변벽(1483-1523)의 자는 헌지(獻之), 호는 구산(龜山)으로 합천군(陝川郡) 야로현(冶廬縣) 돈평리

28) 도산서원(道山書院), 디지털거창문화대전.

29) 변중량(卞仲良),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0) 변계량(卞季良),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敦平里)[지금의 함천군 야로면 야로리]에서 출생하였다. 세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거창현의 외가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변벽은 거창현 모곡(茅谷) 구산(龜山)[지금의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에 거주하였다. 1507년(중종 2) 생원시에 급제하였으며, 1518년에는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에 의해 천거되었고, 1519년(중종 14) 조광조(趙光祖)의 청으로 실시된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하며 후진을 양성하였다.³¹⁾

2.3.1.4 성천서원(星川書院)

성천서원은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에 위치하며, 병자호란 이듬해인 1637년(인조 15)에 거창군 북상면의 월성에 와서 우거하면서 초당을 짓고 후진들을 가르쳤던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703년(숙종 29)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창건되었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동춘당 송준길은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진사에 급제하여 이조판서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예설에 밝았고, 송시열과 뜻을 같이 하여 서인에 속하였다. 거창군 마리면의 영승서원과 문묘에서 제향하고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월성마을의 서원터에는 다산초당과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³²⁾

2.3.1.5 영빈서원(潁濱書院)

영빈서원은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의 동래정씨 집성촌에 위치하며, 1744년에 창건하여 동래정씨 정구(鄭矩), 정종(鄭種), 정표(鄭彪), 정응두(鄭應斗), 정시수(鄭時修), 정영진(鄭營振)의 6위를 제향하던 영천사(潁川祠)에서 출발하였다. 서원 철폐령에 따라 1864년에 훼철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절의, 충효, 성경 정신을 일깨우고자 사림과 후손들이 1919년에 다시 세우고 영빈서원으로 개칭하였다. 강당의 마당에는 1951년에 다시 세운 육현묘정비(六賢廟庭碑)가 있다.³³⁾

2.3.1.6 용원서원(龍源書院)

용원서원은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에 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문위(文緯)를 배향하기 위하여 고을 사림이 1686년(숙종 12)에 건립하였으며, 그 뒤 변창후(卞昌後)를 추가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는데, 1887년에 서원을 복원하였으며, 1991년에는

31) 변벽(卞璧),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32) 성천서원(星川書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33) 영빈서원(潁濱書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사당인 모현사를 복원하였다.³⁴⁾

문위(1554-1631)의 관향은 남평(南平), 자는 순부(純夫), 호는 모계(茅谿)이다. 문위는 1554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남명 조식, 덕계 오건, 한강 정구 등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39세 때인 1592년에 문위는 왜군의 내침을 비교적 빨리 알아 4월 24일에 노부모와 가족을 음막동으로 피난시키고, 5월 17일에 신중기를 불러서 가북면 용산에서 의병을 모집하여,³⁵⁾ 의병장 김면(金面)과 함께 고령(高靈)에서 왜군을 맞아 싸웠다. 김면이 전쟁 중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뒷일을 잘 맡았으며, 부모의 3년상을 마치자 거창현 모계리(茅谿里)에 집을 짓고 10여 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다.³⁶⁾ 동강 김우옹, 서애 류성룡의 추천을 받아 동몽교관, 사헌부 감찰 등을 지낸 문위는 정인홍 등과 함께 남명 조식의 제자였지만 정인홍이 광해군을 옹립하며 집권하자 관계를 끊고 독서에 전념하였다.³⁷⁾

2.3.1.7 완계서원(浣溪書院)

완계서원은 거창군 주상면 완태리에 위치하며, 1664년(현종 5)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식(金湜)의 절의와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1680년(숙종 6)에 ‘浣溪’라고 사액되었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고종 6)에 훼철되었다.³⁸⁾

김식(1482-1520)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노천(老泉), 호는 사서(沙西)·동천(東泉)이다. 1501년(연산군 7)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1519년 4월 조광조·김정(金淨) 등 사림파의 건의로 실시된 현량과에서 장원 급제하였는데, 이는 김식이 조광조에 버금갈만한 인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조판서 신상(申鎬)과 우의정 안당(安塘)의 거듭된 상계(上啓)로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조광조와 함께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미신 타파, 향약 실시,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위훈 삭제(僞勳削除) 등의 개혁정치를 폈다. 그 해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 절도안치(絶島安置)의 처벌이 내려졌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등의 비호로 선산(善山)에 유배되었다. 뒤따라 일어난 신사무옥에 연좌되어 다시 절도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창에 숨었다가 “해는 기울어 하늘은 어둑한데, 텅 빈 산사 위에 구름이 떠가네. 군신 간의 천년 의리는 어느 외로운 무덤에 있는가[日暮天昏黑 山空寺入雲 君臣千載義 何處有孤墳]”라는 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선조 때에 이조참판을 거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양근(楊根)의 미원서원(迷原書院), 청풍의 황강서원(凰岡書院), 거창의 완계서원(浣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의(文毅)이다.³⁹⁾

34) 용원서원(龍源書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35) 이종천 편, 『居昌郡史(보정자료)』 (거창: 거창문화원, 2009), 49.

36) 趙綱 撰, 茅谿文先生墓誌銘.

37) 거창읍지편찬위원회 편, 『居昌邑誌』 (거창: 거창읍지편찬위원회, 2011), 1373.

38) 완계서원(浣溪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9) 김식(金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3.1.8 역천서원(嶧川書院)

역천서원은 거창군 원천면 사마리에 있으며, 1635년(인조 13)에 임득번(林得蕃)과 정유명(鄭惟明, 1539-1596)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서원터만 남아 있다.

거창 지역에서 조선 전기에 활약한 큰 인물로 갈천 임훈과 동계 정온을 들 수 있는데, 임득번과 정유명은 각각 이 두 인물의 아버지이다. 역양 정유명은 석천 임득번의 아들인 갈천 임훈의 문하생이다.⁴⁰⁾

2.3.1.9 용천사(龍泉祠)

용천사는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원천마을에 있었던 서원으로 조선 중종대의 형사보, 유자방, 이계준과 선조대의 전팔고, 전팔급, 서숙을 추모하기 위해 1711년(숙종 37)에 사우(祠宇)로 세웠던 것을 1778년(정조 2)에 서원으로 승격하였으나, 1864년에 훼철되었다.⁴¹⁾

형사보(邢士保, 1482-?)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중우(仲愚), 호는 지지당(止止堂)이다. 형사보는 1510년(중종 5) 생원시에 급제하였으며, 1518년(중종 13) 경상도관찰사 김안국(金安國)에 의해 거창의 변벽(下壁), 형사철과 함께 천거되었다. 형사보는 1519년(중종 14) 실시된 현량과(賢良科)에 선발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고, 1522년(중종 17) 문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했다. 조광조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안처순(安處順)·변벽·유자방(柳子房) 등과 도의(道義)를 맺었다. 형사보의 행적을 엮은 『지지당실기(止止堂實記)』가 진주형씨 명현(名賢)들의 행적과 시문 등을 엮은 『형씨연방록(邢氏聯芳錄)』에 수록되어 있다.⁴²⁾

유자방(柳子房, 1484-1540)의 본관은 문화(文化), 자(字)는 택지(澤之), 호(號)는 추담(楸潭)이다. 유자방은 경사(經史)에 통달했으며,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같은 거창현 출신의 형사보(邢士保)·변벽(下壁) 등과 일찍이 교유하였다. 1519년(중종 14)에는 형사보·변벽과 함께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훗날 유일(遺逸)[조선 시대 초야에 은거하는 선비를 찾아 천거하는 인재 등용책]로 천거되어 김천도 찰방(金泉道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고 학문 연구에 주력하였다.⁴³⁾

이계준(李繼俊, 1490-1558)의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자영(子英), 호는 쌍청당(雙淸堂)이다. 152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사화가 찾아지자 과거에의 미련을 버리고 수양하며 학문에 힘썼다. 갈천 임훈과 사귀며 서로 강론하였다.⁴⁴⁾

40) 역천향사(嶧川鄉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41) 거창문화원, 『알기쉬운 거창역사』(거창: 거창문화원, 2014), 223. 이 책에서는 '源泉祠'로 되어 있으나,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龍泉祠'로 되어 있어, 후자를 따왔다.

42) 형사보(邢士保),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43) 유자방(柳子房),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전팔고(全八顧, 1540-1612)의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경필(景弼), 호는 원천(原泉)이며,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에서 태어났다. 전팔급(全八及)과는 사촌이다. 전팔고는 학문에 능통하여 11세 때 『논어(論語)』·『중용(中庸)』을 독과하였다. 20세 때는 덕계(德溪) 오건(吳健)의 문하생이 되었다가, 25세 때 덕산으로 가서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인이 되어 학문을 익혔다. 1587년에 원천정(原泉亭)을 건립하여 한강(寒岡) 정구(鄭述),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 옥계(玉溪) 노진(盧禎), 사호(思湖) 오장(吳長), 모계(茅谿) 문위(文緯) 등과 강론하며 학문과 도의를 연마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팔고는 원천정(原泉亭)을 의병의 비밀 모의 장소로 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전팔고는 부산 등지가 잇달아 함락되자 향교와 서원의 생도들을 모아 요서에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고, 이듬해에는 우현(牛峴)에서 초유사 김성일을 만났다. 또한 전팔고는 명나라 장수 유충병(劉攄兵)이 대구에서 거창으로 진을 옮겼으나 극심한 군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군량을 공급하여 위기를 면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명나라 황제는 첨지(僉知) 벼슬을 내렸고, 선조(宣祖)는 대사헌(大司憲) 벼슬을 내렸지만 마다하였다. 현재 그의 호를 딴 원천 마을이 거창에 존재한다.⁴⁵⁾ 저서로는 문집 『원천선생일고(原泉先生逸稿)』가 목판으로 1842년에 간행되었다.

전팔급(全八及, 1542-1613)의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경추(景追), 호는 원계(原溪)이며, 전팔고(全八顧)의 종제(從弟)이다. 전팔급은 거창군 가조면에서 태어났다. 벼슬을 단념하고 성리학에 몰두하여 그 학문이 깊었다. 남명 조식, 덕계(德溪) 오건(吳健)의 문하에서 배움을 쌓고, 한강 정구, 동강 김우옹, 모계 문위와 교유하였다. 임진왜란 때 정인홍을 따라 거창에서 창의해서 향토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쳤으나, 정인홍이 인조반정으로 실각하는 바람에 그 업적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다.⁴⁶⁾

서숙(徐翮, 1595-?)의 본관은 원주(原州)이며, 자는 홍거(鴻舉)이다.⁴⁷⁾

2.3.1.10 포충사(褒忠祠)

포충사는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에 위치하며, 1728년(영조 4)의 무신란 때 순절한 이술원 장군을 모신 사당으로 1737년(영조 13)에 사액을 받아 거창읍 대동리에 세웠다가 1777년(정조 원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진하였다.

이술원(李述原, 1677-1728)의 자는 선숙(善叔)이고 본관은 연안이다. 1728년(영조 4)에 이인좌가 난을 일으켜 서울로 북상하고, 안의현에서 정희량이 이에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이술원은 거창현 좌수로서 거창현감 신정모가 도주하자 현내의 군사권을 위임받아 끝까지 대적하다 결국 잡혀 죽었다. 공의 아들 이우방(李遇芳)이 시신을 안고 집에 가서 겨우 염습하고 아버지의 원수 갚기를 맹세하고 곧 관군에게 가서 스스로 선봉을 청하여 적의 괴수를 생포하였다.⁴⁸⁾

44) 쌍청당공(雙淸堂公) 사적(事蹟), <<https://cafe.naver.com/ypyalee/909>>.

45) 전팔고(全八顧),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46) 전팔급(全八及),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47) 서숙(徐翮),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뒤 이슬원은 이조판서, 사헌부 대사헌에 추증되었고 충강공(忠剛公)의 시호를 받았다. 포충사는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경상남도의 세 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⁴⁹⁾

2.3.1.11 경충사(景忠祠)

경충사는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위치하며, 이인좌의 난 때 크게 공을 세웠으나 적에게 잡혀 죽음을 당한 신명익의 충절을 기려 건립하였다. 신명익(愼溟翊, 1676-1728)의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남거(南舉)이다. 거창 향임으로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정희량(鄭希亮)의 반란군이 거창으로 들어오자 반군의 기밀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병영(兵營)에 제공하여 적을 무찌르는 데 크게 공을 세웠으나 적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1788년(정조 12) 좌승지에 추증되었다.⁵⁰⁾

2.3.1.12 창충사(彰忠祠)

창충사는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으며,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戊申亂] 때 향리로 있던 신석현(愼錫顯), 신극종(愼克終), 신덕현(愼德顯), 신치근(愼致謹), 신광세(愼光世) 등 창의하여 반군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다섯 충신을 기리는 곳으로 일명 오충사라고도 한다. 난이 평정된 후 1788년(정조 12)에 사우를 건립토록 하였고, 이들 다섯 충신은 후에 공조좌랑으로 추증되었다. 건물 배치는, 강학공간인 성암서당과 사당인 창충사가 동향과 남향으로 세워져 있다.⁵¹⁾

이와 같이 거창의 12개 서원에서 향사하는 인물은 김평필·정여창·송준길로 대표되는 이 지역에서 가르침을 베푼 인물, 임득변·신권·정유명 등으로 대표되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지역의 선비들을 교육한 인물, 문위로 대표되는 임진왜란에서 창의하여 왜군을 격퇴하거나, 이슬원으로 대표되는 1728년 무신란 때 창의하여 국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 동계 정운으로 대표되는 남명 조식의 제자이지만 합천의 정인홍과 달리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비판하고 병자호란 때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거창 지역은 조선 전기부터 성리학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아 지역에서 인재가 계속 배출되었으며, 조정에 추천되어도 관계에 나아가지 않고 지역에서 강학하는 선비가 많음으로 인해 거창지역의 학문적 저력이 축적되었다고 하겠다.

경남의 여러 지역이 인조반정으로 인한 복인의 몰락과 무신란으로 인해 관계 진출이 차단되었던 것과는 달리 거창 지역은 정운이 정치적 입장을 정인홍의 복인과 달리 함에 따라 인조반정 이후에 정계에 복귀하고, 무신란 주도자의 한 사람이 정운의 현손인 정희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의

48) 박기용, 『옛 文獻으로 읽는 居昌史叢覽』(거창: 거창문화원, 2010), 230-231.

49) 포충사(褒忠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50) 경충사(景忠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5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77호 거창 창충사(居昌 彰忠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제사가 회복되는 등 복권됨을 볼 때 합천 등과는 달리 거창은 정치적인 소외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3.2 책판

거창지역에서 선현의 학문과 행적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문집을 목판에 판각하여 현재 거창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2.1 『갈천선생문집』 책판(葛川先生文集册板) 및 『첨모당선생문집』 책판(瞻慕堂先生文集册板)

『갈천선생문집』 책판 및 『첨모당선생문집』 책판은 조선 명종·선조 때의 유학자인 갈천(葛川) 임훈(林薰, 1500-1584)의 『갈천선생문집』 4권2책과 그의 아우 첨모당(瞻慕堂) 임운(林芸, 1517-1572)의 『첨모당선생문집』 3권2책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책판으로 모두 177장이다. 이 책판은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 있는 임씨고가의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임씨고가는 임훈이 거처했던 집이다. 두 문집은 1665년(현종 6) 임훈의 후손이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서문을 썼다.

『갈천집』에 실려 있는 ‘언양진폐소(彦陽陳弊疏)’는 임훈이 언양현감으로 있을 때 가혹한 세금 때문에 고통 받는 농민의 생활상을 조정에 보고하며 해결을 촉구한 글로, 당시 언양 지역의 사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첨모당문집』에 실려 있는 유학을 장려하고 불교를 배척하자는 글을 통해 조선중기의 사상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두 문집에는 또한 지역 사회에 관한 글들이 다수 실려 있어, 거창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임훈은 생원시에 합격하여 광주목사를 역임하였고 장례원(掌禮院) 판결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낙향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다. 또 부역제도와 군정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등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으로서 추앙받았다. 임훈의 아우인 임운은 이황의 문인으로서 경사를 비롯하여 지리·율려·산수에 능통했으며 형과 함께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다.

2.3.2.2 『춘당집(春堂集)』 책판 및 『춘정집(春亭集)』 책판

고려말, 조선초기의 문신 춘당(春堂) 변중량(卞仲良, ?-1398)의 문집인 『춘당집(春堂集)』과 그의 아우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문집인 『춘정집(春亭集)』 책판 177장이 거창군 가조면의 병암서원(屏巖書院)에 소장되어 있다.

『춘당집』 2권1책은 간기 “乙酉(1825)屏巖書院開刊”에서 보듯이 1825년(순조 25)에 거창의 병암서원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며, 1822년에 김시찬(金是贊)과 홍석주(洪奭周)가 서문을, 1823년에 조인영(趙寅永)이 발문을 썼다. 변중량은 변계량의 형이며 정몽주의 문인으로 이성계의 이복형인 이원계(李

元桂)의 사위이다.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를 지냈으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 정도전의 일파로 몰려 제거 당했다. 시에 능했으며 지금은 없어진 거창 가조의 병암서원에 제향되었다.⁵²⁾

『춘정집』 12권 5책은 변계량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변계량의 문인인 관승문원사 정척(鄭陟)이 수집 편찬한 것을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에서 교정하여 원고를 만들었다. 목판은 세종의 윤허를 얻어 그 문인인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권맹손(權孟孫)이 1442년(세종 24)에 밀양에서 처음 간행하였다. 변계량도 정몽주, 이색, 권근의 문인으로 1407년(태종 7)에 문과급제 후 여러 벼슬에 이어 대제학을 20여 년간이나 맡아 외교문서를 작성했으며 과거의 시관으로 선비 뽑는 일을 공정하게 하여 고려 말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문장과 시에 뛰어나 많은 글을 남겼지만 임진왜란 등으로 초간본이 거의 유실되자 1825년(순조 25)에 거창 병암서원에서 중간(重刊)하였다.

2.3.2.3 『대전선생실기(大田先生實記)』 책판

조선 초기 문신 대전(大田) 이보흙(李甫欽, 1398-1457)의 『대전선생실기(大田先生實記)』 5권2책을 판각한 목판이다. 이보흙은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경부(敬夫), 호는 대전(大田)이다. 1397년에 영천 대전(大田)마을에서 태어나 영천에 이배되어 온 태재(泰齋) 류방선(柳方善, 1388-1443)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이보흙은 1429년(세종 11) 문과에 급제한 뒤, 동부훈도관(東部訓導官)·집현전박사·성균주부·지함양군사(知咸陽郡事)·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457년(세조 3)에 순흥도호부사(順興都護府使)로 있으면서 순흥에 유배 중인 금성대군 이유(李瑜)와 함께 재향품관(在鄕品官)·군사(軍士)·향리(鄕吏) 등 이른바 영남 사인들을 규합해 단종 복위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박천에 유배된 뒤 같은 해 10월에 교살되었다. 1738년(영조 14)에 복권되었으며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광주의 대치사, 영천의 송곡서원, 청안(淸安)충청북도 괴산군 소재)의 향사에 제향되고 있으며⁵³⁾ 이후 충절을 인정받아 영월 장릉의 배식단에 배향되었고, 영주 금성대군 신단에도 위(位)가 안치되어 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2.3.2.4 『교우문집(膠宇文集)』 책판

파평(坡平)윤씨 교우(膠宇) 윤주하(尹胄夏, 1846-1906)의 문집 20권11책을 판각한 책판이다. 교우 윤주하는 1846년 거창 전촌(箭村, 현재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에서 죽석(竹石) 윤흠도(尹欽道)의

5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변계량 춘당집 목판 및 변계량 춘정집 목판”,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1,01690000,38&pageNo=1_1_1_0>,
[접속일 2020.4.30.]

53) “대전선생실기 해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cf/frm/ykFrm.jsp?CODE1=01&CODE2=01&CLSS=&B_SUJI_ID=KSAC_M_A0300023&B_BOOK_ID=&B_KWON_ID=&B_STYLE_ID=&B_KISA_ID=>>, [접속일 2020.4.5.]

아들로 태어났다. 윤주하는 면우 곽종석과 더불어 한말 거창을 대표할 만한 유학자로 평생 동안 성리학에 몰두하였고 동천재에서 80여명의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윤주하는 사미현 장복추, 성재 허전, 한주 이진상 등 당대 영남학파의 석학들을 두루 찾아가 학문을 익혔으니, 사미현에게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을, 성재에게 예학을, 한주에게 성리학을 배웠다. 이를 통해 윤주하가 전형적인 영남학맥을 이은 선비임을 알 수 있다.⁵⁴⁾

‘교우문집 책판’은 1906년 윤주하가 작고한 이듬해인 1907년에 장사를 끝내고 유고를 문인인 이승래(李承來), 이영훈(李永薰), 박종권(朴鐘權) 등이 필사하여 1908년에 곽종석이 원집과 속집으로 나누었고, 1911년에 판각하였다.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의 윤주하 생가 옆에 1993년에 신축한 장판각에 책판 427장이 보관되어 있다.

2.3.2.5 『연재선생문집(淵齋先生文集)』 책판

구한말 문신인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문집 53권24책을 판각한 목판으로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341번지 성암사(聖巖祠)에 1,942장이 소장되어 있다. 송병선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이다.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이며, 송면수(宋勉洙)의 맏아들로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琬, 1839-1912)의 형이다. 큰아버지인 송달수에게서 송병순과 함께 성리학을 배운 송병선은 일찍이 뛰어난 학행으로 천거되어 관직이 내려졌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두 차례의 ‘청토흉적소(請討凶賊疏)’를 올렸다. 이에 대한 비답이 없자 상경하여 고종을 알현하고 을사오적을 처형할 것, 현량(賢良)을 뽑아 쓸 것, 기강을 세울 것 등의 십조봉사(十條封事)를 올렸다. 경무사 윤철규(尹喆圭)에게 속아 납치되어 대전으로 호송된 송병선은 그 해 음력 12월 30일 국권을 강탈당한테 대한 통분으로, 고종과 국민과 유생들에게 유서를 남겨 놓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유서에서 을사오적 처형, 을사조약 파기 및 의(義)로써 쫓겨나야 국권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였다.⁵⁵⁾ 사후에 의정(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연재선생문집(淵齋先生文集)』 책판을 판각하여 소장하고 있는 성암사(聖巖祠)는 한말 을사조약 체결에 격분하여 자결한 연재 송병선, 경술국치 후 자결한 심석재 송병순, 일제의 국권침탈과 高宗의 승하 소식을 듣고 자결한 연호(連湖) 이주환(李柱煥, 1854-1919)을 모신 사당이다.⁵⁶⁾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출신의 합천이씨 연호 이주환이 활동한 거창지역은 인접한 삼가, 합천 지역과 함께 연재학파의 경상도 중요 거점 지역이었다. 연재가 1901년 9월 거창의 병산서재와 세심대에서 각각 강회를 열었다는 사실로 본다면, 연재학파는 1901년 전후에 이미 상당규모가 거창 지역에 존재

54) “교우 윤주하 선생에 대하여...,” <<http://egloos.zum.com/openup9/v/4775401>>, [접속일 2020.5.15.]

55) “송병선(宋秉璿),”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6) 주상면>내고장자랑>문화관광, 거창군청 홈페이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창은 연재 송병선과 심석재 송병순의 위패 봉안과 『연재선생문집』의 책판을 보관한 <연재선생문집장판각>이 있는 성암사의 존재 등으로 연재학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연호 이주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나아가 연재학파의 중요 계승자 중에 한 사람이다.⁵⁷⁾

이상에서 살폈듯이, 거창지역에서 관각하여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통해 거창지역은 조선전기부터 성리학에 대한 강학이 활발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교우문집(膠宇文集)』 책판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적 전통이 영남학파로서 정치적으로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족과 아울러 『연재선생문집』 책판에서 볼 수 있듯이 기호학파의 학문적 전통과 정치적으로 서인, 특히 노론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족이 공존했을 알 수 있다.

3. 거창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류탁일은 한국 ‘문집(文集)’의 개념을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쓴 문장이나 시문 등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서⁵⁸⁾ 합고류(合稿類)·유집류(遺集類)·전집류(全集類)·실기류(實記類) 등을 포괄한 것으로 보았다.⁵⁹⁾ 이는 다시 말하면 광의의 ‘문집’에는 문집 이외에 합고, 유집, 전집, 실기 등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집의 하위범주를 문집, 유집, 실기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합고와 전집은 제외하였다. 합고는 저자 2인 이상의 시문이 합편되는 경우인데, 이는 유집이나 실기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집은 1인의 시문이 여러 차례 편찬, 간행되는 경우에 후일에 모두 모아서 전집의 형태로 편찬되어 양은 방대하지만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에 해당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문집, 유집, 실기 모두 저자 1인의 시문이면 별집, 2인 이상의 시문이면 합집으로 하위 구분하였다. 문집에는 일반적으로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이 함께 실리는데, 간혹 시만 모아놓은 시집이 발견되기도 한다.⁶⁰⁾

57) 鄭敬薰, “居昌 지역 淵齋學派와 연호 이주환,” 『東方漢文學』 제78집(東方漢文學會, 2019), 82.

58) 류탁일, “문집의 이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의 문화유산』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186.

59) 유집류는 유고·유집·일집(逸集)·일고(逸稿) 등이 이에 속하는데, 유고(집)는 유문(遺文)을 모은 유문집이라는 뜻이고, 일고(집)는 저작자의 작품이 전란이나 기타 재화로 인하여 없어지고 남은 잔편(殘篇)을 수집, 편찬할 때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유고나 일고는 저자의 자편(自篇)일 수 없고 후인(後人)이 찬집한 것이 되며, 분량은 대개 1, 2책 정도이다.

전집류는 저술을 많이 남긴 큰 학자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하는데, 전집(全集)·전서(全書)·대전(大全)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도산전서(陶山全書)』와 같이 쓰임이 보통이나, 한 개인의 저작 전집을 ‘대전’으로 붙인 것은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유일한 것이다. 실기류는 주로 피전자(被傳者)의 행적을 주로 하고, 그가 남긴 시문과 후인들의 송찬(頌讚)·시문을 합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전기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어 사용된다. 실기는 본인의 저술은 별로 없고 후인들의 송찬·시문 및 사적(事跡)이어서 사실이 더러 과장되었거나 허구성 짙은 경우도 있다. 류탁일, “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 문집의 유형

경남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35종의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

구분		종수	%	문집명(종수)
문집 (文集)	별집 시문	28	80	菊齋集, 琴川先生文集, 毓齋集, 茅谿先生文集, 百悔齋集, 柏後集, 三稀堂文集, 石谷先生文集, 醒泉文集, 小山文集, 松川先生文集, 鵝湖集, 漁適先生文集, 五友齋集, 酉澗先生文集, 栗齋集, 二山文集, 螭窩集, 林谷先生文集, 典庵文集, 箭湖集, 靜岡文集, 竹軒先生文集, 芝樵文集, 八松先生文集, 平巖集, 弦窩集, 曉山集
	합집 시문	1	2.9	坡山世稿
유집 (遺集)	별집	3	8.6	東窩遺稿, 龍巖遺集, 恥軒先生遺稿
	합집	-	-	
실기 (實記)	별집	2	5.7	江湖先生實記, 濬湖實記
	합집	1	2.9	聯芳錄
계		35		

경남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35종의 유형을 보면, 문집은 29종(82.9%), 유집은 3종(8.6%), 실기는 3종(8.6%)이다. 전체 35종의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집인 별집은 33종(94.3%)이고, 2인 이상의 시문집인 합집은 2종(5.7%)으로서 『파산세고(坡山世稿)』와 『연방록(聯芳錄)』이다.

문집의 합집인 『파산세고(坡山世稿)』는 파평윤씨 윤우(尹楸, 1724-1776)와 그 아들 6형제, 손자 4형제의 문집의 합집으로 12권6책이다. 『默窩集(尹楸)』, 『小南集(尹炳九)』, 『丹厓集(尹炳來)』, 『美南集(尹炳殷)』, 『山石集(尹炳周)』, 『華下集(尹炳敷)』, 『訥軒集(尹炳旼)』, 『攄軒集(尹晋達)』, 『斗峯集(尹翼達)』, 『靜修集(尹德達)』, 『美堂集(尹英達)』 등 11개의 小集이 수록되어 있다. 尹楸는 炳九·炳來·炳殷·炳周·炳楸·炳旼의 6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약간의 小集이 남겨져 있다. 晋達는 炳九의 아들, 翼達는 炳敷의 아들, 德達는 炳周의 아들, 英達는 炳旼의 아들이다. 윤우는 호가 默窩이며, 본관은 坡平으로 尹彦頤의 후손이며,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이 책은 18-20세기에 걸친 파평윤씨 가문의 문집들을 尹胄夏가 모아 1908년에 목활자로 인출하였다.⁶¹⁾

실기의 합집인 『연방록(聯芳錄)』은 형진춘(邢震春)이 거창형씨 선현의 행적들을 실기 형태로 엮어 1853년에 목활자로 인출한 책이다. 1권에서 3권까지의 본문은 거창형씨 문중의 여러 인물에 대한 행적을 시대별로 모아서 엮었다. 1권에는 지지당선생행적(止止堂先生行蹟)[邢士保, 1482-1532], 도곡공행적(道谷公行蹟)[邢世英], 경암공행적송(敬菴公行蹟松)[邢龍城], 송촌공행적(松村公行蹟)[邢溧], 백촌공행적(栢村公行蹟)[邢潔], 제안재공행적(濟安齋公行蹟)[邢璉], 우락당공행적(憂樂堂公行蹟),

60) 송정숙,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220 참고.

61) 『坡山世稿』 해제, 奎15628-v.1-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고.

효은공행적(孝隱公行蹟), 극재공행적(克齋公行蹟), 영모당공행적(永慕堂公行蹟)이 수록되어 있다. 2권에는 지지당선생실기(止止堂先生實記)[邢士保], 도곡공실기(道谷公實記)[邢世英], 경암공실기(敬菴公實記)[邢龍城]가 수록되어 있다. 3권에는 송촌공실기(松村公實記)[邢溧], 백촌공실기(栢村公實記)[邢潔], 제안재실기(濟安齋實記)[邢璉, 1624-1657], 효은공실기(孝隱公實記)[邢世績], 극재공실기(克齋公實記)[邢宗夏, 1712-1787], 영모당실기(永慕堂實記)[邢國胤, 1777-1835]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발문(跋文)은 1853년 후손 형석원(邢錫元)과 1852년 후손 형진춘이 모의재(慕義齋)에서 쓴 것이 있다.

3.2 문집의 저자사항

3.2.1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분석

경남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한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의 출생연도를 조사하였다.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가 소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집 부록의 행장을 통해 출생연도를 파악하였다.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35종의 저자 35인⁶²⁾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출생연도	인원(종수)	저자(출생년, 서명)
1300-1349	-	
1350-1399	1	1 金叔滋(1398, 江湖先生實記)
1400-1449	-	
1450-1499	1	1 邢士保(1482, 聯芳錄)
1500-1549	2	曹淑(1504, 竹軒先生文集), 成彭年(1540, 石谷先生文集)
1550-1599	7	5 文緯(1554, 茅谿先生文集), 尹景男(1556, 澗湖實紀), 柳仲龍(1558, 漁適先生文集), 柳世勳(1564, 恥軒先生遺稿), 林眞愆(1586, 林谷先生文集)
1600-1649	3	鄭時修(1601, 琴川先生文集), 鄭必達(1611, 八松先生文集), 金千鎰(1622, 松川先生文集)
1650-1699	2	李蓋(1655, 百悔齋集), 鄭榮振(1672, 平巖集),
1700-1749	3	姜柱齊(1701, 三稀堂文集), 全就大(1728, 菊齋集), 姜鼎煥(1741, 典庵文集)
1750-1799	9	6 李逸協(1750, 螭窩集), 林碩馨(1751, 龍巖遺集), 尹東野(1757, 弦窩集), 朴命稷(1781, 箭湖集), 尹楸(1784, 坡山世稿), 李東昇(1786, 鵝湖集)
1800-1849	12	8 朴熙典(1803, 西澗先生文集), 金基洙(1818, 柏後集), 金琦浩(1822, 小山文集), 李鎔義(1825, 芝樵文集), 卞榮奎(1826, 曉山集), 金時煦(1838, 五友齋集), 鄭趾善(1839, 兢齋集), 朴鍾弼(1849, 栗齋集)
1850-1899	4	崔元根(1850, 二山文集), 朴泰永(1851, 東窩遺稿), 朴廷來(1861, 醒泉文集), 崔孝根(1872, 靜岡文集)
계	35	

62) 합집인 경우 제 1저자 1인으로 계산하였다.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35종의 저자 35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해 보면, 저자 35인은 모두 조선 시대에 출생한 인물로서 14세기 후반인 1398년에 출생한 『강호선생실기(江湖先生實記)』의 김숙자부터 19세기 후반인 1872년에 출생한 『정강문집(靜岡文集)』의 최효근까지 474년의 간극이 있다. 거창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저자 26인의 출생연도 분포를 10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4세기 1인(2.9%), 15세기 1인(2.9%), 16세기 7인(20%), 17세기 5인(14.3%), 18세기 9인(25.7%), 19세기 12인(34.3%)으로 19세기 인물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다음 18세기 인물이 1/4, 16세기 인물이 1/5을 차지한다.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조선 건국초기인 1398년에 출생한 인물은 『강호선생실기』의 김숙자(金叔滋, 1398-1456)이다. 김숙자는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자배(子培), 호는 강호(江湖)·강호산인(江湖散人)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김숙자는 야은(治隱) 길재(吉再), 별동(別洞) 윤상(尹祥)의 문인으로 선산 영봉리(迎鳳里)에서 태어났으며, 1414년(태종 14)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9년(세종 1) 문과에 급제하였다. 고려현감, 성균관사에 등을 지냈다. 1455년(세조 1) 12월 사직하고 1456년 처가가 있는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 해 3월 2일에 밀양군 대동리에서 별세하였다. 16세기에 사림에 의해 확립된 도통(道統)의 계보에서 길재의 학문을 이은 아들 김종직(金宗直)은 효성이 지극하여 『소학』의 법도를 따라서 어머니를 모셨다. 『소학』을 중심으로 한 실천을 강조하는 학풍은 김숙자-김종직을 거쳐 16세기에 이르러 사림에 큰 설득력을 발휘했다.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김굉필은 스스로 ‘소학동자’라고 지칭하면서 30세까지 ‘소학’에만 천착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길재에서 김숙자를 거쳐 김종직에 이르는 한국 성리학의 학통이 이렇게 시작되었다.⁶³⁾

강호(江湖) 김숙자의 손자인 김연(金纘)이 무오사화를 피해 외가 동네인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로 옮겨와 살면서 김숙자의 후손들이 거창에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고, 김숙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일원정(一源亭)에서 선조인 김숙자의 『강호선생실기』 5권2책이 1934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화를 당한 사람 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은 김숙자의 아들인 김종직의 대표적인 제자로 훗날 문묘(文廟)에 배향된다. 이 중 김굉필은 거창과 인접한 함천군 야로현(治廬縣)의 처가에 거주하면서 함양 수곡에 거주하던 정여창과 함께 거창 지역 인사들과 교류하였고, 수포대(水瀑臺, 지금의 거창군 가조면 도리 소재)에서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근에는 거창 출신으로 김굉필의 동서인 최숙량(崔淑梁, 1456-1515)이 이들의 강학 활동을 도우면서 거창지역의 성리학적 기틀을 다지는데 일조하기도 했다.⁶⁴⁾

15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연방록(聯芳錄)』의 형사보(邢士保, 1482-1532) 1인이다. 형사보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중우(仲愚), 호는 지지당(止止堂)이다. 1506년(중종 1) 연산군이 물러가고 새로

63) 김숙자,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88%99%EC%9E%90_\(1389%EB%85%84\)](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88%99%EC%9E%90_(1389%EB%85%84))>, [접속일 2020.5.10.]

64) 거창군청, “거창의 성리학적 기반,”

즉위한 중종은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해 사림과 인사들을 중용하였고, 이들은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에 은거해 있는 인재들을 중용하기도 했다. 이에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은 경상도의 인재를 천거하였는데, 거창 지역에서는 1519년(중종 14) 변벽(卞璧, 1483-1528)·형사철(邢士哲, 1480-?)·유자방(柳子房, 1484-1540)과 함께 형사보가 현량과(賢良科)에 추천되었다.

16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죽헌선생문집(竹軒先生文集)』의 조숙(曹淑, 1504-1582), 『석곡선생문집(石谷先生文集)』의 성팽년(成彭年, 1540-1594), 『모계선생문집(茅谿先生文集)』의 문위(文緯, 1554-1631), 『영호실기(潁湖實記)』의 윤경남(尹景男, 1556-1614), 『어적선생문집(漁適先生文集)』의 류중룡(柳仲龍, 1558-1635), 『치헌선생유고(恥軒先生遺稿)』의 류세훈(柳世勛, 1564-1631), 『임곡선생문집(林谷先生文集)』의 임진부(林眞愬, 1586-1658) 등 7인이다.

조숙(1504-1582)은 갈천 임훈의 부친인 임득번(林得蕃)과 김인후(金麟厚)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1531년(중종 26)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급제하였고, 1540년(중종 35)에는 문과 식년시에 급제하였다. 1543년(중종 38)에는 안음현의 사락정(四樂亭)[지금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소재]에 찾아온 퇴계 이황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였다.

성팽년(1540-1594)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서 태어났다. 갈천(葛川) 임훈(林薰)에게 배웠으며, 정유명(鄭惟明), 신권(愼權) 등과 친교가 두터웠다. 1564년(명종 19)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성팽년은 정유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당시 의병장인 김면(金沔)의 휘하에 들어가 참모로 활약하였다. 처음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제수되었지만 나가지 않았다. 1594년(선조 29)에 사망하고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성팽년의 문인인 동계 정온의 『동계집(桐溪集)』에 <성석곡전>이 수록되어 있다.⁶⁵⁾

윤경남은 1556년(명종 11)에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에서 태어났다. 12세에 학산(學山) 문산두(文山斗)에게서 그의 아들인 모계(茅谿) 문위(文緯)와 함께 학문을 배웠으며, 동계(桐溪) 정온(鄭蘊), 존재(存齋) 곽준(郭越), 어적(漁適) 류중룡(柳仲龍)과 교유하였다.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윤경남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문위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고령의 송암(松菴) 김면(金沔) 휘하로 들어가 진을 거창으로 옮기고 참모로 활약하며 큰 공을 세웠다.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김면이 진중에서 죽자 문위와 함께 뒷일을 처리하였다. 1599년(선조 32) 4월에 장수현감(長水縣監)을 제수받아 관직에 나아가 1612년(광해군 4)에는 운봉 현감(雲峰縣監)이 되어 재직 중인 1614년(광해군 6)에 5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893년(고종 30)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증직되었다.⁶⁶⁾

임진부(1586-1658)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낙옹(樂翁), 호는 임곡(林谷)이다. 아버지는 임승근

65) 성팽년(成彭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47011&cid=59782&categoryId=59839>>.

66) 윤경남(尹景男),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47007&cid=59782&categoryId=59839>>.

(林承謹)이며, 어머니는 광주 노씨(光州盧氏)이다. 아버지가 일찍 죽자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웠으며, 이상사(李上畬)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었으나 정치가 어지러움을 보고는 다시 과거를 보지 않고 은거하여 지냈다. 인조반정 후 독서인(讀書人)으로 이름이 있어, 1635년(인조 13) 대군(大君)의 사부로 천거된 바 있다.⁶⁷⁾

16세기 초기 출생인물인 조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 퇴계 이황, 남명 조식과 교류하였으며, 16세기 중기 출생인물인 성평년·문위·류중룡 등은 남명 조식의 제자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켰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17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금천선생문집(琴川先生文集)』의 정시수(鄭時修, 1601-1647), 『팔송선생문집(八松先生文集)』의 정필달(鄭必達, 1611-1693), 『송천선생문집(松川先生文集)』의 김천일(金千鎰, 1601-1647), 『백회재집(百悔齋集)』의 이개(李蓋, 1655-1735), 『평암집(平巖集)』의 정영진(鄭榮振, 1672-1728) 등 5인이다.

18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삼희당문집(三稀堂文集)』의 강주제(姜柱齊, 1482-1532), 『국재집(菊齋集)』의 전취대(全就大, 1728-1790), 『전암문집(典庵文集)』의 강정환(姜鼎煥, 1741-1816), 『이와집(弦窩集)』의 이일협(尹東野, 1750-1808), 『용암유고(龍巖遺集)』의 임석형(林碩馨, 1751-1816), 『현와집(弦窩集)』의 윤동야(尹東野, 1757-1827), 『전호집(箭湖集)』의 박명직(朴命稷, 1781-1852), 『파산세고(坡山世稿)』의 윤우(尹楸, 1784-?), 『아호집(鵝湖集)』의 이동승(李東昇, 1786-1863) 등 9인이다.

19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유간선생문집(酉澗先生文集)』의 박희전(朴熙典, 1803-1888) 『백후집(柏後集)』의 김기수(金基洙, 1818-1873), 『소산문집(小山文集)』의 김기호(金琦浩, 1822-1902), 『지초문집(芝樵文集)』의 이용의(李鎔義, 1825-1903), 『효산집(曉山集)』의 변영규(卞榮奎, 1826-1902), 『오우재집(五友齋集)』의 김시후(金時煦, 1838-1896), 『궁재집(兢齋集)』의 정지선(鄭趾善, 1839-1897), 『울재집(栗齋集)』의 박종필(朴鍾弼, 1849-1898), 『이산문집(二山文集)』의 최원근(崔元根, 1850-1923), 『동와유고(東窩遺稿)』의 박태영(朴泰永, 1851-1926), 『성천문집(醒泉文集)』의 박정래(朴廷來, 1861-1907), 『정강문집(靜岡文集)』의 최효근(崔孝根, 1872-1948) 등 12인이다.

3.2.2 저자의 성관(姓貫)

향촌사회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조선후기에 학문적 역량이 있는 선조가 있음을 증거하는 문집 간행은 문중의 주요 사업이었다. 거창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문중을 파악하고자 문집 저자의 성씨와 관향(貫鄉), 즉 성관(姓貫)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67) 임진부(林眞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표 4>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

발행 종수	성씨의 종류	성관	저자명(출생년, 문집명)
5	1	밀양박씨	朴命稷(1781, 箭湖集), 朴熙典(1803, 西澗先生文集), 朴鍾弼(1849, 栗齋集), 朴泰永(1851, 東窩遺稿), 朴廷來(1861, 醒泉文集)
3	4	선산김씨	金叔滋(1398, 江湖先生實記), 金千鎰(1622, 松川先生文集), 金時煦(1838, 五友齋集)
		동래정씨	鄭時修(1601, 琴川集), 鄭榮振(1672, 平巖集), 鄭趾善(1839, 蛟齋集)
		과평윤씨	尹景男(1556, 澗湖實紀), 尹東野(1757, 弦窩集), 尹楨(1784, 坡山世稿)
2	4	하빈이씨	李蓋(1655, 百悔齋集), 李逸協(1750, 螭窩集), 李鎔義(1825, 芝樵文集)
		문화류씨	柳仲龍(1558, 漁適先生文集), 柳世助(1564, 恥軒先生遺稿)
		은진임씨	林眞愆(1586, 林谷先生文集), 林碩馨(1751, 龍巖遺集)
		진양강씨	姜柱齊(1701, 三稀堂文集), 姜鼎煥(1741, 典庵文集)
1	10	화순최씨	崔元根(1850, 二山文集), 崔孝根(1872, 靜岡文集)
		김녕김씨	金琦浩(1822, 小山文集)
		남평문씨	文緯(1554, 茅谿先生文集)
		밀양변씨	卞榮奎(1826, 曉山集)
		상산김씨	金基洙(1818, 柏後集)
		완산이씨	李東昇(1786, 鵝湖集)
		죽산전씨	全就大(1728, 菊齋集)
		진양정씨	鄭必達(1611, 八松先生文集)
		진양형씨	邢士保(1482, 聯芳錄)
창녕성씨	成彭年(1540, 石谷先生文集)		
		창녕조씨	曹淑(1504, 竹軒先生文集)
	19		

위 <표 4>에서 보듯이,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저자의 성관을 분석해 보면, 목활자본 문집 35종을 간행한 저자 35인의 성관은 모두 19성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5종을 간행한 밀양박씨이고, 다음 3종을 간행한 성관은 선산김씨, 동래정씨, 과평윤씨, 하빈이씨의 4성씨이고, 다음 2종을 간행한 성관은 문화류씨, 은진임씨, 진양강씨, 화순최씨의 4성씨이며, 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10성씨로서 김녕김씨, 남평문씨, 밀양변씨, 상산김씨, 완산이씨, 죽산전씨, 진양정씨, 진양형씨, 창녕성씨, 창녕조씨이다.

거창에서 가장 많은 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밀양박씨의 거창 입향조는 박태웅(朴泰雄, 1669-?)이다. 그는 유년 시절[1673년]에 가화(家禍)를 당하여 의령군 가례(嘉禮)에서 외가곳인 과평윤씨가 사는 남하면 살목[矢窟]으로 옮겨와 살았다. 밀양박씨의 거창 세거지는 남하면 상촌(上村)이며, 『거창향안』에는 입향조 박태웅(朴泰雄)이 등재되어 있다.⁶⁸⁾ 박명직(朴命稷, 1781-1852)은 입향조인 박태웅의 현손으로 자는 명여(命汝), 호는 전호(箭湖)이며, 서고(西臯) 이동태(李東泰)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는 거창 지역의 향정(鄕政)에 참여하여 향토의 교육을 장려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에

68) 거창읍지편찬위원회 편, 『居昌邑誌』(거창: 거창읍지편찬위원회, 2011), 735-742.

전념하였으며, 향교의 교규(校規)와 제례(祭禮)를 쇠신하였다. 문집으로 『전호집(箭湖集)』이 있다.

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선산김씨의 거창 입향 경위를 보면, 조선 세종 때에 정조공파(正朝公派)의 후손 김의남(金義南)은 아우 김제남(金弟南)이 거창 현감으로 부임하자 거창으로 옮겨와 살았다. 거창읍 의동, 사동, 학동, 모곡을 중심으로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연산군 때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자 보령현감인 취수(醉睡) 김수양(金粹讓)이 가조면 대초리로 옮겨와 살면서 이곳이 취수공파의 집성촌이 되었다. 김수양(金粹讓)의 후손인 김천일(金千鎰)은 1652년(효종 3)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교(判校)에 이르렀다. 강호(江湖) 김숙자의 손자인 김연(金纘)이 무오사화를 피해 외가 동네인 남상면 대산리로 옮겨와 살면서 강호공파 후손들의 집성촌이 되었다.⁶⁹⁾ 이곳에서 중시조에 해당하는 강호 김숙자의 『강호선생실기(江湖先生實記)』를 인출하였다.

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동래정씨의 거창 입향조는 사직공(司直公) 정지운(鄭智耘, 1444-1499)이다. 정지운은 양평공(襄平公)의 제4남으로 성주에서 태어나 성종 때인 1482년을 전후하여 거창군 남하의 무등곡[무릉리]에 이거하였다. 거창군 내의 동래정씨 집성촌은 남하면의 무릉리와 대야리, 남상면의 대산리와 전척리, 마리면의 영승리 장백 마을과 울리 풍계 마을, 웅양면 군암리의 송산마을이다. 입향조 정지운은 동방 5현 가운데 수현(首賢)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과 사돈의 인연을 맺을 정도였으니, 그 학문과 덕행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후손들도 가풍을 이어받아 충효열 삼강에 모범을 보인 자와 유학에 조예가 깊어 문집을 남긴 자와 과거에 합격한 자와 높은 관직에 오른 자들이 매우 많다.⁷⁰⁾

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파평윤씨는 윤신달을 시조로 하고 윤자선과 윤할이 거창 입향조로 거창에 세거하는 성씨이다. 입향조인 윤자선의 할아버지인 14세 윤장(尹將)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재판서(司宰判書)를 역임했는데, 당질서(堂姪孀)[사촌 형제의 사위]인 우의정 김종서(金宗瑞)가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희생되자 화를 피해 합천 묘산면 화양동에 은거했으며, 손자인 16세 윤자선이 1500년경에 거창 남하 양항의 상촌으로 입향하여 그 자손들이 남하면 양항리 살목 마을과 남하면 둔마리 안흥 마을에 세거하였다. 26세손 윤동야(尹東野)와 30세손 윤주하(尹胄夏)는 큰 선비로 방대한 문집을 남겼다. 대표적인 집성촌은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살목마을과 둔마리 안흥마을, 마리면 영승리이다.⁷¹⁾ 묵와(默窩) 윤우(1784-1836)는 윤장의 후손으로 같은 윤씨 가문의 현와 윤동야(尹東野, 1757-1827)로부터 글을 배웠다. 1834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에 뽑혔다. 윤주하가 윤경남의 『영호실기』와 윤우 등의 『파산세고』를 편집, 간행하였다.

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하빈이씨(河濱李氏)의 거창 입향조 이침(李沉)은 이우당(二憂堂) 이경(李瓊)의 현손(玄孫)으로 1457년 경에 거창에 입향하였다. 이후 아들 형제 중 차남 통덕랑(通德

69) 거창읍지편찬위원회 편, 『居昌邑誌』 (거창: 거창읍지편찬위원회, 2011), 735-742.

70) 동래정씨(東萊 鄭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71) 파평윤씨, 디지털거창문화대전.

郎) 간(簡)의 후손이 용양, 동촌 등지에 살았으며, 14세손 현계[賢啓, 짐중추(僉中樞)]의 아들 5형제 중 첫째 아들 정진[挺長, 감정공파(監正公派)]은 지산에 정착하였고, 둘째 아들 정회[挺會, 좌랑공파(佐郎公派)]는 함양에 정착하였다. 셋째 아들 정기[挺趾, 월담공파(月潭公派)]는 영승[迎勝, 현 마리면 월회(月華)]에 정착하고 넷째 아들 정시[挺時, 침정공파(僉正公派)]도 지신을 토대로 정착하였고, 다섯째 아들 정서[挺亭, 용계공파(龍溪公派)]는 기동[基洞, 텃골]에 정착하였다. 거창향안에는 13세 참판공(參判公) 이위(李偉)가 등재되어 있다.⁷²⁾

3.3 문집의 간행사항

3.3.1 간행연도

문집의 간행연도는 문집 권말의 간행기록인 간기(刊記)와 인기(印記), 1909년 출판법 공포 이후 간행된 책의 경우에는 판권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간혹 간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서문이나 발문 가운데 가장 최후에 작성된 서문이나 발문의 작성연도를 통해 간행연도를 추정하였다.

<표 5>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연도

간행연도	종수 (%)		간행년(저자, 문집명)
1800-1809	3 (8.6%)	1 (2.9%)	1804(成彭年, 石谷先生文集)
1810-1819			
1820-1829		1 (2.9%)	1829(文緯, 茅谿先生文集)
1830-1839		1 (2.9%)	1834(林眞怱, 林谷先生文集)
1840-1849			
1850-1859	4 (11.4%)	1 (2.9%)	1852(邢士保, 聯芳錄)
1860-1869			
1870-1879			
1880-1889			
1890-1899		3 (8.6%)	1896(金基洙, 柏後集), 1897(李蓋, 百悔齋集 / 尹景男, 潯湖實紀)
1900-1909	26 (74.3%)	8 (22.9%)	1901(金千鎰, 松川先生文集), 1902(鄭必達, 八松先生文集), 1907(鄭時修, 琴川集), 1908(柳仲龍, 漁適先生文集 / 尹楬 等, 坡山世稿), 1909(柳世勛, 恥軒先生遺稿/ 鄭榮振, 平巖集/ 卞榮奎, 曉山集)
1910-1919		2 (5.7%)	1912(鄭趾善, 兢齋集), 1915(金琦浩, 小山文集)
1920-1929		9 (25.7%)	1920(朴命稷, 箭湖集 / 朴熙典, 西澗先生文集), 1926(金時嘯, 五友齋集 / 姜柱齊, 三稀堂文集 / 朴廷來, 醒泉文集), 1927(姜鼎煥, 典庵文集), 1929(李鎔義, 芝樵文集 / 李逸協, 螭窩集)
1930-1939		6 (17.1%)	1930(朴泰永, 東窩遺稿 / 朴鍾弼, 栗齋集), 1934(金叔滋, 江湖先生實記 / 曹淑, 竹軒先生文集), 1936(崔元根, 二山文集), 1937(林碩馨, 龍巖遺集)
1940-1949		1 (2.9%)	1949(全就大, 菊齋集)
1950-1959		2 (5.7%)	2 (5.7%)
계	35		

72) 거창읍지편찬위원회 편, 『居昌邑誌』(거창: 거창읍지편찬위원회, 2011), 735-742.

위 <표 5>에서 보듯이, 경남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35종은 모두 19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20세기 전반부인 1900년~1949년까지의 50년 동안에 전체 35종 가운데 3/4에 가까운 26종(74.3%)이 간행된 것을 볼 때, 거창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20세기 들어 간행이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거창지역에서는 성팽년(成彭年)의 『석곡선생문집(石谷先生文集)』이 간행된 1804년이 가장 이르고, 마지막은 이동승(李東昇)의 『아호집(鵝湖集)』이 간행된 1957년까지 153년 동안에 35종의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되었다. 가장 많이 간행된 시기는 35종 가운데 26종(74.2%)이 간행된 1900년대 전반기이고, 다음은 4종(11.4%)씩 간행된 1800년대 후반기이며, 다음은 3종(8.6%)이 간행된 1800년대 전반기이며, 1900년대 후반기는 2종으로 1953년과 1957년이다.

이로써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19세기에 들어 간헐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다가 19세기 말인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즉 1896년부터 1957년까지 61년 동안에 전체 35종 가운데 90%에 가까운 31종(88.6%)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집중되는 현상은 인근 지역인 산청,⁷³⁾ 합천,⁷⁴⁾ 진주⁷⁵⁾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거창지역에서도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지식인 집단이 자기 문중의 학문을 선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목판인쇄에 비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인출이 가능한 목활자 인쇄가 선호되고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대부터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활발한 것은 거창뿐이 아니라 서부경남 일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1940년대 이후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줄어든 것은 거창지역에서도 의령지역과 같이 문집 간행이 신연활자나 석판으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본다.⁷⁶⁾

3.3.2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경남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 사후 문집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다.

경남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35종의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4년부터 사후 478년까지 즉 저자 사후 480년 이내에 문집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문집 35종 가운데 100년 단위로 보면,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1~100년 사이에 15종(42.9%)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101~200년 사이에 9종(25.7%), 저자 사후 201~300년 사이에 7종(20%)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저자 사후 301~

73) 송정숙, “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68집(2016. 12), 231-232.

74) 송정숙,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73집(2018. 3), 232-233.

75) 송정숙, “경남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77집(2019. 3), 272.

76) 송정숙, 김시내, “경남 의령지역의 문집 간행양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0권 제4호(2019. 12.), 325-326.

400년 사이에 2종(5.7%)이 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저자 사후 478년에 1종이 간행되었다.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20년 이내에 가장 많은 9종(25.7%)이 간행되었고, 저자 사후 300년이 지나서는 320년, 352년, 478년에 각각 1종씩 간행되었다.

<표 6> 거창지역 목활자본 문집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저자 사후 소요기간	종수 (%)		기간(간행년, 문집명)
사후 1-50년	15 (42.9%)	12	3 4년(1930, 東窩遺稿), 5년(1953, 靜岡文集), 7년(1909, 曉山集)
			6 11년(1926, 醒泉文集), 12년(1920, 西澗先生文集), 15년(1912, 兢齋集), 13년(1915, 小山文集 /1936, 二山文集), 18년(1896, 柏後集)
			2 26년(1929, 芝樵文集), 30년(1926, 五友齋集)
			1 32년(1930, 栗齋集)
			-
사후 51-100년	3	3 68년(1920, 箭湖集), 70년(1897, 弦窩集), 94년(1957, 鵝湖集)	
사후 101-150년	9 (25.7%)	4 110년(1926, 典庵文集), 121년(1937, 龍巖遺集 / 1929, 螭窩集) 149년(1927, 三稀堂文集)	
5 159년(1949, 菊齋集), 162년(1897, 百梅齋集), 176년(1834, 林谷先生文集), 181년(1909, 平巖集), 198년(1829, 茅谿先生文集)			
사후 201-250년	7 (20%)	3 205년(1901, 松川先生文集), 209년(1902, 八松先生文集), 210년(1804, 石谷先生文集)	
사후 251-300년		4 260년(1907, 琴川集), 273년(1908, 漁適先生文集), 278년(1909, 恥軒先生遺稿), 283년(1897, 澹湖實紀)	
사후 301-350년	2 (5.7%)	1 320년(1852, 聯芳錄),	
사후 351-400년		1 352년(1934, 竹軒先生文集)	
사후 401-450년	1 (2.9%)	-	
사후 451-500년		1 478년(1934, 江湖先生實記)	
미상	1(2.9%)	1 *(1908, 坡山世稿)	
계	35		

이로 미루어 전통시대에는 지식인이 별세하면 그 자손이 중심이 되어 시문이 유실되기 전에 수집하여 문집 간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창에서는 목활자본 문집이 1900년대 전반기에 대부분 간행되었고,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된 문집이 많은 것을 볼 때, 19세기에 영남 서부 지역에 새롭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문을 통해 가문을 일으키려는 인물이 많았으며, 강학활동에 힘써 영남 서부 지역에 많은 인재가 배출된⁷⁷⁾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창지역에서 저자 사후 기간이 가장 많이 지난 후에 간행된 것은 사후 478년에 거창 일원정에서 간행된 강호 김숙자(1398-1456)의 『江湖先生實記』이다. 이 책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거의 소실되었으나, 1934년 후손 진식(鎭植)이 유문 및 관계문헌을 모아 출판하였다. 전쟁이나 화재·일실

77) 김봉곤, “嶺南地域 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 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제29권(2010. 6), 29.

등으로 저자의 시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실록이나 다른 문헌에서 고인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여 연보를 편집하고, 행장이나 묘갈명 등을 유명 인사에게 받아서 편집한 책이 ‘실기(實記)’이기 때문이다.

저자 사후 7년에 간행된 『효산집』은 변영규(1826-1902)의 시문집으로 아들 변기석(下淇錫)이 1909년에 간행하였다. 변영규의 조카 변황석(下璜錫)의 발문에 의하면, 변영규가 죽은 지 6년 후인 1909년 초여름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천재(山泉齋)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다고 한다.

저자 사후 13년에 간행된 『이산문집』은 최원근(1850-1923)이 1923년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최홍렬(崔鴻烈)이 주도하여, 직접 가장(家狀)[조상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지어 1934년 장상학(張相學)에게 행장(行狀)[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을 받고, 1935년에 송준필(宋浚弼)에게서 서문을, 1936년 정동철(鄭東轍)에게 묘지명, 최효근(崔孝根)에게 유사, 정재성(鄭載星)과 윤창수(尹昌洙)에게 발문을 받아 1936년에 사우당에서 간행하였다. 간기(刊記)는 1책 말미에 실려 있다.

저자 사후 68년만인 1920년에 간행된 『전호집』은 박명직(朴命稷, 1781-1852)이 1852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 16년인 1868년에 쓴 김계진(金啓鎭)의 서와 박종필(朴鍾弼)의 초본발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68년에 편찬하여 간행을 시도하였다가 불발된 이후 사후 68년인 1920년에 박명직의 증손자들인 박종권(朴鍾權)과 박종후(朴鍾厚)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저자 사후 70년에 간행된 윤동야의 『현와집』은 저자가 죽은 뒤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원고를 죽손 윤병효(尹炳敎)가 수습하고, 그의 형 윤병주(尹炳周) 등의 교열을 받아 1870년(고종 7) 편집 완료하였다. 이어 1894년 증손 윤성도(尹成道)와 죽손 윤택규(尹宅逵)가 종친의 도움을 받아 교감(校勘)한 뒤, 1897년 죽손 윤병항(尹炳恒) 등과 함께 간행하였다. 권두에 1897년 장복추(張福樞)가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 죽손 윤병주의 초본발(草本跋), 이근용(李根容)의 서초본후(書抄本後), 1897년 죽손 윤병항의 간본발(刊本跋)이 있다.

3.3.3 발행소 분석

경남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처(소)가 문집의 저자, 혹은 문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간기나 판권지의 발행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간기나 인기에는 누정이나 재실의 이름만 보이기도 하고, 간기가 없더라도 가끔 발문에 나타난 간행장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판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소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판권지에도 발행소(처)의 주소만 나타나므로 설립 주체와 건물의 용도 등 발행소의 성격은 『거창의 문화유산 1, 2, 3(거창문화원, 2010)』, 『거창의 누정 문화(거창문화원, 2010)』, 『거창군사(거창문화원, 2009)』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7> 거창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발행소

구분	간행 종수	간 행 소						
		발행소명	주소	관리문중	용도	간행연도	간행 문집명(지자)	
재실 (齋室)	3	1	龍山齋		진양정씨		1902	八松先生文集(鄭必達)
		1	山泉齋	가조면 사병리 1번지	밀양변씨	변중량, 변계량, 변벽 추모	1909	曉山集(卞榮奎)
		1	東窩齋	웅양면 동호리 330번지	밀양박씨		1930	東窩遺稿(朴泰永)
누정 (樓亭)	4	1	鼓琴亭		밀양박씨		1920	箭湖集(朴命稷)
		1	心蘇亭	남하면 양항리	밀양박씨	윤자선 추모	1930	栗齋集(朴鍾弼)
		1	一源亭	남상면 대산리	선산김씨	김숙자를 추모	1934	江湖先生實記(金叔滋)
		1	道溪亭	북상면 갈계리	은진임씨	임영을 추모	1937	龍巖遺集(林碩馨)
서원 (書院)	2	1	龜淵書院	위천면 황산리 750번지	거창신씨 요수중중	신권, 신수이, 성팽년을 배향	1804	石谷先生文集(成彭年)
		1	澗川祠	남하면 무릉리 1123-4번지	동래정씨	정구, 정중, 정표, 정응두, 정시수, 정영진 배향	1907	琴川集(鄭時修)
서당	1	1	四友堂	남하면 무릉리 월곡마을 274번지	화순최씨	최원근 4형제의 자녀교육	1936	二山文集(崔元根)
계	10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35종 가운데 인기나 관련지가 있는 10종의 문집에 나타난 발행소를 분석하면, 누정(樓亭) 4종, 재실(齋室) 3종, 서원(書院) 2종, 서당 1종의 순이다. 거창지역 목활자본 문집이 주로 재실이나 누정에서 간행되었음을 볼 때, 목활자본 문집 간행은 후손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의 사업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재실(齋室)은 글자 뜻 그대로 ‘몸을 깨끗이 하고 조상에 대한 생각을 간절히 하는 곳’으로서⁷⁸⁾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이다. 거창에서는 선현을 위한 제향공간인 재실 가운데 龍山齋, 山泉齋, 東窩齋의 3곳에서 3종의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되었다.

산천재(山泉齋)는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병산마을 북서쪽 어귀에 있다. 원래는 문화재(文會齋)였으나 1892년 화재로 없어진 것을 다시 세워 산천재라 하였다. 가조면 사병리 병산마을은 밀양변씨 집성촌으로 병암서원 장서각에 『春堂集』, 『春亭先生文集』, 『龜山實記』의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1868년에 서원이 철폐됨에 따라 문화재 안으로 옮겼다. 변영규가 산천재의 중건을 주도했는데, 이곳에서 변영규의 문집인 『효산집』이 1909년에 간행되었다.

정자는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정자 둘레에 우거진 숲이 있으며, 앞에는 넓게 트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⁷⁹⁾ 거창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정자는 고금정, 심소정, 일원정, 도계정의 4곳에서

78) 박기용, 『거창의 누정 문화』 (거창: 거창문화원, 2010), 37.

79) 거창문화원, 『알기쉬운 거창역사』 (거창: 거창문화원, 2014), 205.

4종의 목활자본 문집이 인출되었다. .

심소정(心蘇亭)은 거창군 남하면 양향리 358번지에 있는데, 교우(膠宇) 윤주하(尹胄夏)가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를 가르쳤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세종 때 북벌의 공로자이고 성종 때 단성현감을 지낸 파평인 윤자선(尹孜善)이 합천 화양동에서 단성을 오가며 평소 봐두었던 심연(心淵, 현 심소정 쪽)으로 이사하여 노닐던 곳으로 뜰에는 강세백(姜世白)이 지은 ‘고현감화곡윤공지단비(故縣監華谷尹公之壇碑)’가 있고, 비문에는 1771년 윤자선의 후손 윤동야의 주선으로 동쪽 폐암자의 건물을 뜯어다 짓고, 금상 정축년 한 동네에 사는 외후손 전주이씨, 밀양박씨들이 협조하여 개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이곳은 1919년 유림이 파리장서 문제를 논의한 곳이며 신간회 회장을 지낸 윤병수가 현 거창초등학교의 전신인 창남의숙(昌南義塾)을 세워 4년제 교육을 한 곳이다.⁸⁰⁾ 이곳에서 외후손인 울재 박종필(1849-1898)의 『울재집(栗齋集)』이 1937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도계정(道溪亭)은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갈계숲에 위치하며, 은진인 도계(道溪) 임영(林英)을 기려서 세운 정자이다. 임영은 형님 갈천(葛川) 임훈(林薰), 동생 침모당(瞻慕堂) 임운(林芸)과 함께 산수마을 마학동(磨學洞)에서 학문을 강론하며 유학에 힘썼으나 31세에 요절하였다. 임영의 후손들이 그를 기려 1889년에 경모재(敬慕齋)를 세웠다가 퇴락하자 1934년에 현 위치에 중건하였고, 이듬해에 정자를 건립하여 그의 호를 따서 도계정이라 하였다.⁸¹⁾ 이곳에서 후손인 임석형(1751-1816)의 『용암유집』이 1937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하나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1906년에 선조의 사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일원정(一源亭)은 강호 김숙자 선생의 후손이 무오사화를 피하여 은거한 집성촌인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에 위치한다. 김숙자의 후손들이 유림 학자들과 더불어 지은 정자로,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광필·정여창·조광조 등 성리학의 뿌리를 같이하는 7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인재를 기르는 서원 역할도 수행하였다. 정자의 벽면에 ‘강호정사(江湖精舍)’라는 편액과 ‘해동연원재(海東淵源齋)’라는 편액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유학연원의 중요한 인물인 김숙자의 유업을 기리고 있으며,⁸²⁾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김숙자의 『江湖先生實記』를 1934년에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거창 지역에서 선현의 제향과 지방 유현의 교육을 담당했던 서원 가운데 구연서원과 영천사의 2곳에서 2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하였다.

구연서원(龜淵書院)은 위천면 황산리 750번지로 수승대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540년에 요수 신권이 서당을 세워 제자를 가르치던 곳에 사람이 1694년에 건립하여 요수 신권, 황고 신수이, 석곡 성팽년을 배향하고 있다. 이곳에서 성팽년의 『석곡선생문집』을 1804년에 간행하였다.

영천사(瀋川祠)는 1744년에 창건하여 동래정씨 정구(鄭矩), 정종(鄭種), 정표(鄭彪), 정응두(鄭應斗), 정시수(鄭時修), 정영진(鄭營振)을 제향하던 서원이다. 서원철폐령에 따라 1864년에 훼철되었

80) 박기용, 『거창의 누정 문화』 (거창: 거창문화원, 2010), 712-713.

81) 박기용, 『거창의 누정 문화』 (거창: 거창문화원, 2010), 402-403.

82) 박기용, 『거창의 누정 문화』 (거창: 거창문화원, 2010), 672-673.

다가 일제 강점기에 절의·충효·성경 정신을 일깨우고자 사림과 후손들이 1919년에 다시 세우고 영빈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951년에 육현묘정비(六賢廟庭碑)를 다시 세웠으며, 서원은 1991년에 중건되었다.⁸³⁾ 병자호란 때 거창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거창지역 금천주위에 금천당을 짓고 은둔하였던 정시수를 제향하는 이곳에서 정시수의 문집인 『금천집』을 1907년에 간행하였다.

거창지역에서 지방민의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서당 가운데 사우당 1곳에서 목활자본 문집 1종을 인출하였다. 사우당(四友堂)은 남하면 무릉리 월곡마을 화순최씨 집성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1907년에 회순최씨 이산(二山) 최원근(崔元根), 계산(桂山) 최형근(崔亨根), 정강(靜岡) 최효근(崔孝根), 월현(月軒) 최정근(崔貞根) 등 4형제가 그의 자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이 사우당에서 4형제 가운데 맏형인 최원근의 『이산문집』이 1936년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3.3.4 인쇄자

경남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인쇄한 인쇄자, 즉 각수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판권지의 인쇄자, 즉 각수를 조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거창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인쇄자 분석

지역(인원)	인쇄자	종수	주소	발행소	간행연도	서 명(저자)
거창	최창근	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262번		1897	弦窩集(尹東野)
고령	최태경	1	고령군 쌍동면 하거리 135번지		1930	東窩遺稿(朴泰永)
산청	강성호	1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754	一源亭	1934	江湖先生實記(金叔滋)
3지역		3				

위 <표 8>에서 보듯이 거창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35종 가운데 권말의 판권지가 있는 책은 3종으로 인쇄자, 즉 각수는 거창의 최창근, 고령의 최태경, 산청의 강성호의 3인이다.

눈에 띄는 것은 경북 고령의 각수 최태경인데, 고령은 거창과 북쪽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서로 내왕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83) “영빈서원,”

<<http://www.geochang.go.kr/tour/tourcontent/assert/TL0202/View.do?id=TL0000092&pageCd=TU0302050000>>, [접속일 2020.4.16.]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거창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인문지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거창의 역사, 거창의 인물, 거창의 서원과 책판을 살펴보았다.

1) 거창 지역은 김굉필·정여창의 수포대 강학으로 대변되듯이 조선전기부터 지역의 선비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며, 이는 지역의 선비들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인재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인해 인재 배출이 계속되었다. 이들은 임진왜란이나 무신란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창의하였고, 남명 조식의 학통을 잇되 정인홍의 복인과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견지한 정운으로 인해 인조반정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았고, 이러한 흐름은 한주 이진상의 문인인 한말의 곽중석에게까지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병자호란을 피해 거창으로 피난 온 송준길이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것을 시발점으로 기호학이 한말까지 지속된 현상은 성암사에서 연재 송병선의 『연재선생문집』 목판본을 간행했던 사실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노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2) 경상남도 거창지역에서 간행된 3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문집 35종 가운데 문집은 29종(82.9%), 유집은 3종(8.6%), 실기는 3종(8.6%)이다. 33종(94.3%)이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고, 2인 이상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합집은 2종이다.

(2) 목활자본 문집 35종의 저자 35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14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로서 19세기 12인, 18세기 9인, 16세기 7인, 17세기 5인, 14·15세기 각 1인이다.

(3) 문집 저자 35인의 성관(姓貫)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19개 성씨 가운데 밀양박씨가 가장 많은 5종의 문집을 간행하였고, 다음으로 선산김씨·동래정씨·파평윤씨·하빈이씨가 3종의 문집을 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류씨·은진임씨·진양강씨·화순최씨가 각 2종, 김녕김씨를 포함한 10개 성씨가 각 1종씩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하였다. 거창지역에서는 목활자본 문집을 두드러지게 많이 간행한 성관은 보이지 않고 19개 성씨가 비슷하게 간행한 편이다.

(4) 거창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35종 모두 19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다. 19세기에 7종, 20세기에 28종이 간행되었는데, 20세기 전반기에 26종(74.3%)이 간행되었다. 거창지역에서는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지식인 집단이 자기 문중의 학문을 선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목활자본 문집을 활발하게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경남의 다른 지역과 같이 이 시기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목판인쇄에 비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인출이 가능한 목활자 인쇄가 선호되고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거창 지역의 목활자본 문집은 전체의 약 43%인 15종이 저자 사후 10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6) 문집 35종 가운데 문집의 간행소를 파악할 수 있는 문집은 10종이다. 이 가운데 재실은 3종, 누정 4종, 서원 2종, 서당 1종이다. 재실은 용산재, 산천재, 동화재이고, 누정은 일원정과 고금정, 심소정, 도계정이며, 서원은 구연서원과 영천사이고, 서당은 사우당이다.

(7) 문집 권말의 판권지를 통해 목활자본 인쇄자, 즉 각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거창에서는 3종의 목활자본 문집에서 3인의 인쇄자, 즉 각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각수의 소재지는 거창, 산청, 경북 고령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인근의 산청, 함천, 함양 등 인근 지역의 연구와 비교하면 거창지역의 독자성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거창문화원. 『알기쉬운 거창역사』. 거창: 거창문화원, 2014.

거창읍지편찬위원회 편. 『居昌邑誌』. 거창: 거창읍지편찬위원회, 201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경남 서부지역의 고문헌』 I, II, III. 진주: 가람출판사, 2008.

구산우, 이정수, 장성진, 최정용. 『경남의 서원』. 서울: 선인, 2008.

김봉곤. “嶺南地域 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 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제29권(2010. 6). 29-76.

박기용. 『거창의 누정 문화』. 거창: 거창문화원, 2010.

박기용. 『옛 文獻으로 읽는 居昌史叢覽』. 거창: 거창문화원, 2010.

朴峻遠. “居昌 절의 정신의 확산: 侷宇 학맥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제81집(東方漢文學會, 2019). 147-173.

송정숙, 김시내. “경남 의령지역의 문집 간행양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0권 제4호(2019. 12). 305-337.

송정숙. “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68집(2016. 12). 201-245.

송정숙. “경남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77집(2019. 3). 251-286.

송정숙. “경남 함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73집(2018. 3). 205-246.

송희준. “桐溪 鄭蘊의 학통과 학문사상.” 『嶺南學』 제26호(2014). 67-102.

이노우에 스스무 지음. 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옮김.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이종천 편. 『居昌郡史(보정자료)』. 거창: 거창문화원, 2009.

鄭敬薰. “居昌 지역 淵齋學派와 연호 이주환.” 『東方漢文學』 제78집(東方漢文學會, 2019). 81-104.

하중환. 『거창의 문화유산』 1, 2, 3. 거창: 거창문화원, 2010.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1), (2),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거창군청. <<http://www.geochang.go.kr/>>.

경남도청. <<https://www.gyeongnam.go.kr/>>.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nu.ac.kr/>>.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enter for Overseas Resources on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http://kostma.korea.ac.kr/>>.

Department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Moon Cheon Ga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ttp://nmh.gnu.ac.kr/>>.

Geochang County Office. <<http://www.geochang.go.kr/>>.

Geochang Cultural Center. 2014. *An Easy-to-know Geochang History*. Geochang: Geochang Cultural Cen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Gyeongnam Culture. 2008. *Ancient Books of Western Gyeongsangnam-do Province I, II, III*. Jinju: Garam Publisher.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https://www.gyeongnam.go.kr/>>.

Ha, Jong-Han. 2010. *Heritage of Geochang District 1, 2, 3*. Geochang: Geochang Cultural Center.

Inoue, Suzuki. Translated by Lee, Dong-cheol, Jang, Won-cheol and Lee, Jung-hee. 2013. *Chinese Publishing Culture History*. Seoul: Minumsa.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Korean Classics Portal.

<<http://www.itkc.or.kr/itkc/Index.jsp>>.

Jung, Kyung-hun. 2019. "Study on Yeonjae-school and Yeonho Lee Joo-hwan in Geochang area"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78: 81-104.

Kim, Bong-Gon. 2010. "The Rise of Nohsa Scholars' Faction in Youngnam Region and Nohsa's Disciple Jeong Jae Gyu's Role." *The Nammyonghak Study*, 29: 29-76.

Koo, San-woo, Lee, Jung-Su, Jang, Sung-jin, & Choi, Jung-Yong. 2008. *The Seowon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Seoul: Seon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Lee, Jong-chun edit. 2009. *The History of Geochang County (Correction data)*. Geochang: Geochang Cultural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n History Database Portal.

<<http://www.koreanhistory.or.kr>>.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CIS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nl.go.kr/korcis>>.

Park, Gi-Yong. 2010. *An Overview of Geochang History in the Old Literature*. Geochang: Geochang Cultural Center.

Park, Gi-Yong. 2010. *Geochang's Pavilion Culture*. Geochang: Geochang Cultural Center.

Park, Joon-won. 2019. "A study on expand of the Geochang's faithful mind."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81: 147-173.

Song, Hee-jun. 2014. "Study on Scholastic Tradition and Learning Idea of Donggye (桐溪) Jeong-on (鄭蘊)." *The Journal of Youngnam Studies*, 26: 67-102.

Song, Jung-Sook. 2016.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Sancheong-gu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8: 201-245.

Song, Jung-Sook. 2018.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Hapcheon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205-246.

Song, Jung-Sook. 2019.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Jinju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7: 251-286.

Song, Jung-Sook, & Kim, Sinae. 2019.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at Uiryeong (宜寧)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The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305-337.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encykorea.aks.ac.k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eneral information on Korean historical figures TOTAL DATABASE. <<http://people.aks.ac.kr/index.ak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http://www.grandculture.net/>>.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Geochang Uepji (town chronicles) edit. 2011. *Geochang Uepji (town chronicles)*. Geochang: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Geochang Uepji (town chronicles).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Basic Science Education Project. 2008. *Woodblock-printed Materials in Gyeongnam Provincial area 1*. Ando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Ugyonet. <<http://www.ugyo.net>>.

